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남편'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그토록 그리던 그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단지 일십분뿐, 다시 안타까움 속에 한 달을 지내야 한다. 그러는 사이 꽃이 피고 눈이 내려 한 해가 가고, 십여년이 흘렀다.

“이철씨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한없이 고생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는 진정 조국을 사랑했고, 제가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과 믿음을 바쳐도 아까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일교포 유학생 이철(40)씨의 '부인' 민향숙(37)씨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철씨는 고대 대학원에 유학중이던 지난 75년 12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대학가는 반유신 데모로 들끓고 있었는데, 이씨는 조총련과

“남편은 간첩이 아니에요”

장기수형자 이철씨 아내 민향숙씨 옥바라지 10여년

접촉하고, 북한에 다녀왔으며, 국내 대학가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쪽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0일간의 모진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결국 1, 2, 3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그

난 72년. 민씨는 숙대 2학년으로 21세였으며, 이씨는 고대 정외과 대학원생으로 24세였다. 민씨가 이씨의 자취생활을 도와주면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뒤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여권수속을 밟던중 둘 다 구속됐다.

두 사람의 옥바라지를 도맡아야 했다. 민씨가 석방된 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한 달에 한번, 그것도 10분 밖에 안되는 면회를 위해 천리길을 달려갔다. 그러던 중 조씨는 재야활동에도 참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있

“40일간 모진 고문... 교포학생사건 연루 조작”

후 두차례에 걸쳐 무기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돼 복역중이다. 민씨 역시 당시 간첩방조죄로 3년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민씨와 이씨가 만난 것은 지

그 후 14년째 법적으로는 부부사이지만 하룻밤도 같이 지내지 못한 것이다.

하나뿐인 딸과 사위가 함께 구속되는 엄청난 충격속에서도 민씨의 어머니 조만조(65)씨는

다.

일본에 있던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구속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3년 만에 숨을 거뒀다.

일본에 남아 있는 이씨의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애타게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사건 후 친척,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왕래도 끊은 채 살고 있다는 민씨는 “아이를 낳고 단란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갈등도 생겼었다”며 “이제는 아이를 낳기도 어려울 것 같아 입양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면회기서 만난 이씨가 “1평 남짓한 조그마한 감방이지만 그래도 내 조국에 있으니 마음은 편하다”고 말할 때였다고 한다. 조국에 대한 그의 사랑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년으로 감형된 이씨의 출소시기는 99년으로, 그때면 이씨는 52세, 민씨는 49세. 20대 초반에 만난 두 젊은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야 ‘진짜부부’가 되는 셈이다.

(박찬희 기자)

청부 폭력피의자 물拷問

경관 3명 執猶선고

동아 988. 7. 08

서울지법형부지원 형사합

의부(재판장 廣善 鳳, 부장판사)

의 8인(정원 10명) 중 1인

차수(정원 10명) 중 1인

정원(정원 10명) 중 1인

차수(정원 10명) 중 1인

정원(정원 10명) 중 1인

차수(정원 10명) 중 1인

정원(정원 10명) 중 1인

차수(정원 10명) 중 1인

177 D 刑務所 差人 崔鍾德

씨 34(捕房) 差人 尹致仁

申 34(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씨 42(捕房) 差人 姜榮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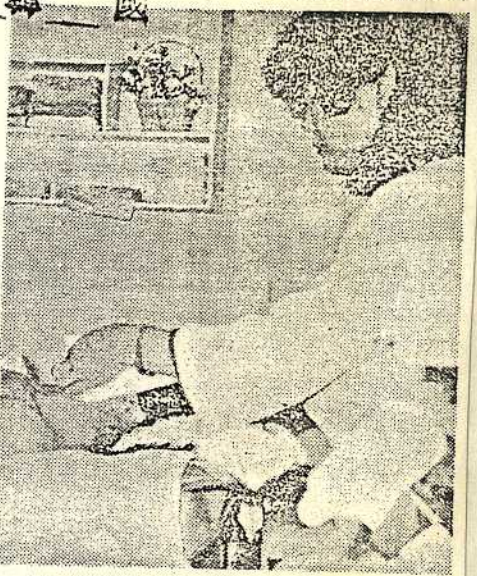
韓 風

고문 피해자가 종류가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피해의 고문이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고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대부분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고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人格 파괴」 치료받아야

고문 피해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부유·고문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지적 활동에도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것이 한강대 의과대 정신과 金二泳교수의 설명이다.

漢陽醫大 金二泳교수에 듣는다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우선 치료법과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다.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마사지요법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金二泳교수

한강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김이영은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쫓기듯 「被害망상」 극복

한강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김이영은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檢診해도 신체적이상 안 나타나 가족들도 못믿고 意慾·책임감 잃어 比等선 非政治的재활센터 운영

한강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김이영은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강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김이영은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강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김이영은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건강



한강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김이영은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문 피해자의 고문 피해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발가벗긴 채 물고문·전기고문

한겨레신문 시국사범 9인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증언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의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국회 내무위에서 증언했던 김근태씨와 변호사 그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등 7명이 모두 위증으로 고발되게 됨으로써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의 남영동 대공분실은 무림, 민학련, 삼민주, 민주위, 전노련, 보임·다산기획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수사한 곳으로서 그동안 고문을 둘러싸고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지난해 1월에는 이곳에서 조사받다 숨진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으로 박치원 전 치안감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곳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심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 육체적 고문을 받았고 인간적 모멸감을 갖게 하는 각종 고문을 경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용식(29·85년 민주위 사건)=지난 85년 8월28일 오후 2시께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 도착하자마자 5층 조사실 큰 방(14호실)으로 끌려가 물고문을 받기 시작했다. 작업복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채 곧바로 칠성판(고문대)에 올려졌다.

물고문은 김수현 경감 지휘 아래 '입 상무', '하 부장'으로 불리는 경찰관 등 연행 당시의 수사팀 3명이 직접 담당했으며, 수배된 선·후배(박문식·박승현·박종운)의 소제를 집중 추궁했다. 고문이 계속되자 위 속에 있는 걸 모두 토해낸 뒤 실신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2차 고문이 시작됐다. 발가벗긴 채 칠성판 위에 눕히고 담요로 몸을 감싼 다음 발목·무릎·허리·가슴 등을 가죽끈으로 팽팽 묶어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 샤워기와 큰 주전자로 계속 물을 부어댔다.

2차 고문 때는 부단장으로 불리던 유이무개 총경의 직접 입회 아래 김수현 경감 등 10여 명이 고문을 자행하며, "빛반만 지나면 폐에 기종이 생겨 죽게 된다"는 등의 위협을 계속했다.

이런 식의 고문은 김근태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수차례 계속됐으며 결국 아무런 관련도 없는 김근태씨가 민주위 배후 인물로 둔갑했다.

김근태씨는 9월4일 연행된 뒤 내가 당했던 그 방으로 끌려갔으며 나는 바로 앞방으로 옮겨져 계속 조사를 받았다.

문을 여닫을 때는 김근태씨의 비명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으며 김수현은 "너도 김근태처럼 당해보고 싶으냐"는 말로 나를 위협했다.

△박문식(30·81년 전민련 및 85년 민주위 사건)=81년 6월23일께 남영동 분실에 연행돼 5층 15호 큰방에서 20여일 동안 호

된 고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4~5명이 달려들어 발가벗기고 마구 구타한 뒤 '칠성판'에서 고춧가루물 고문과 전기고문을 가했다.

당시 고문을 담당했던 사람은 '반달곰'이라고 불린 이근환 경위와 젊은 형사 2~3명이었는데 그의 주특기는 관절을 뽑았다 끼웠다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문 때 "남민전도 내가 고문해서 만들었고 무림도 내가 다 해줬다"고 자랑스레 말했는데 지금은 경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상복(32·86년 보임·다산 기획사건)=지난 86년 3월26일 연행돼 20여일 동안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한쪽 다리가 없는 불구인데 짚고 다니던 목발로 세 차례에 걸쳐 등·가슴 등 온몸을 수없이 구타당했다. 물고문도 다섯 차례나 당했다. 몸을 거꾸로 번쩍들어 옥조 속에 처박는 고문을 세 차례, 수

고문받았다고 떠들고 김근태도 계속 떠드는데, 너도 나가거든 실컷 떠들어봐라. 그러나 나는 끄떡도 안한다. 증거가 있느냐? 고문으로 내 목이 날아갈 것 같았다면 아예 고문하지도 않는다. 어디 한번 싸워보자."

△이태복(38·81년 전노련사건)=81년 6월10일 낮 12시30분께 남영동으로 연행된 직후 온몸을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때리면서 내가 '수괴'(무슨 단체의 수괴인지는 말하지 않았음)이며 '공산주의자'임을 자인하도록 강요했다. 내가 거부하자 옥조에 머리를 처박고 "항복할 의사가 있으면 발가락을 까딱거리라"고 했다.

밤새도록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점점 강도를 높여 계속했다. 졸도하면 알약을 먹이고 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도록 했다. 전기고문은 양쪽 발가락에 코일을 감아 전류를 통하게 했다. 6명이 번갈아가며 고문을 했는데

며 위협했다. 보름 동안의 고문으로 몸무게가 13kg이나 줄었다.

△이을호(34·85년 민청련사건)=85년 9월2일 김근태씨에 앞서 안기부로 연행돼 무차별 구타를 당한 뒤 하루 만에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는 동안 정신적 압박이 가중돼 지렁이도 되고 뱀, 닭 2마리, 돼지 3마리가 되는 등의 계속적인 동물환각 속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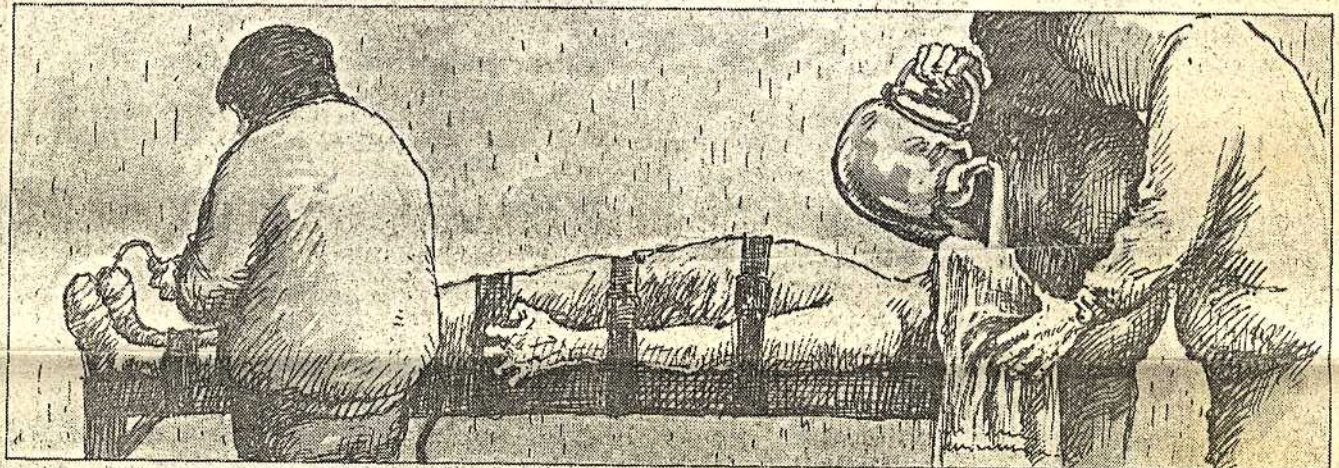
이때 당한 심적압박의 결과 그해 10월 서울시립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다.

△노항기(48·80년 기협 계엄 포고령 위반사건)=80년 5월 기협간부들이 모여 계엄사의 검열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이 문제돼 계속 수사를 받아오다 6월 말 남영동 분실로 잡혀갔다. 1주일 정도 있는 동안 옥조에 머

동 대공분실에서 구타, 물고문, 잠 안깨우기 등 각종 고문을 받았다. 특히 10일 동안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해진 5층 맨끝 방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대단히 심리적 불안감을 줬다.

'화이트'라고 불린 백남은 3수가 고문을 지휘했으며 수하 4명의 수사관이 수시로 요란한 재즈음악을 틀 뒤 고문을 했다. 다른 방에서도 재즈음악이 들리곤 했는데 이들은 "저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놈이 김근태다. 지금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너도 곧 김근태처럼 된다"고 겁을 주었다. 재판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증언했지만 이들이 받아낸 진술서대로 판결이 나왔다.

△고경대(31), 고경미(26) 남매(86년 보임·다산기획사건)=86년 3월25일께 서적출판물 둘러싼 세미나가 용공 이적단체 구성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남영동 분실에 연행, 30여 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칠성판' 위에서 물고문·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졸도하면 알약 먹이고 물 끼얹어

칠성판에 묶어놓고 얼굴에 고춧가루물 부어대

“나가서 떠들어봐라, 증거 있느냐”

건으로 얼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는 고문을 두 차례 받았다.

고문은 이(김)봉우 상무(경감), 최이무개 경사 등 담당수사관들이 직접 했으며, 백남은 전무가 총괄 지휘했다.

백남은 "이 자리에서 이제 문, 이태복, 김근태, 허인회가 모두 나한테 당했다" "근태는 결국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하며 기었다"고 계속 자랑했다. 백 전무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해댔다. "허인회가 나가더니

'유 전무' '백 전무'로 불리는 경감 2명, 이근환·김수현 경위, 경사 2명 등이었다.

며칠 뒤 대공분실장이 직접 고문 현장에 나타나 "죽어도 좋으니 항복을 받아내라"고 말하고 나갔다. 이때부터 고문자들은 발광하듯 침대 각목으로 온몸을 난타했다.

이들은 "최종길이 어떻게 죽는지 아느냐. 너 하나쯤은 죽여서 휴전선 철조망에 걸어놓고 총구멍을 내 '월북하려는 것을 사살했다'고 발표하면 그만이다"

리를 처박는 물고문과 고춧가루 고문 등을 골고루 겪었다. 특히 그들은 흥분상태에서 설 사이 없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구타했는데 그때 침추가 비껴나가면서 그대로 굳어버려 지금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한 통증을 시달리고 있다.

당시 고문수사관으로 유명한 이근환 경위는 고문수사의 공으로 '청룡부사'까지 받은 것으로 들었다.

△허인회(26·85년 삼민주 사건)=85년 9월6일 연행돼 남영

동 고문과 취조를 받았다. 처음 3일 동안 주로 구타와 박종철씨가 당한 것과 같은 물고문을 받았는데 차라리 이것은 견딜 수 있었으나 동생 경미를 함께 취조하면서 가한 협박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심각한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당시 우리 보임사건을 총지휘했던 사람은 '화이트'라고 불린 백 전무였고, 다산기획은 홍 상무였는데 최근 국정감사를 보고 백 전무는 백남은, 홍 상무는 홍승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건강연구소 '고문문제' 세미나

한양대학병원 부설 정신건강연구소는 11일 학술세미나를 열고 최근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문에 대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 요지를 옮겨본다. <편집자 주>

△김이영 교수(한양대·신경정신과)= 고문의 결과는 피해자의 전인격의 파괴로 나타나며 아무리 강한 사람도 끝까지 고문을 견뎌낼 수 없다. 나치에게 고문당한 유대인을 연구한 아이팅거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가운데 85%가 뇌기능 장애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덴마크 의사연구팀

파탄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체진단과 함께 피해자와 환경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개별적 치료와 집단적 치료를 적절히 실시해야 한다. 또 이들을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직업안정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피해자를 정신 의학적으로 치료한다는 것보다 사회전체적·제도적 차원에서 고문을 근절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다.

△양길승 인의협 기획국장= 고문의 근절에 장애가 되는 것은 고문에 이어 3년에서 7년까지 구금생활을 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또 오랫동안 고문이 지속된 결과 이에 대해 일반국민이 대단히 무감각해졌다는 점이나 가해자가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체념의식도 고문 근절에 장애가 되고 있다.

독재권력이 사용하는 제도적 폭력 피해자 전인격 파괴...85%가 뇌기능장애

또는 남미에서 고문받은 사람을 조사한 '알로디보고서'에 따르면 고문피해자의 대부분이 신경 및 감각 장애, 기억·정신집중 장애, 성기능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가장 흔한 의학적 증상은 치통·근육통·두통 등이며 이는 소화기계통의 장애로 이어지고 협심증으로 호흡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 정신적 후유증은 우울증, 지적 능력의 저하, 설하면 망상과 환청에 시달린다. 인간신뢰의 능력이 저하되고 자긍심이 약화돼 인격이

△한완상 교수(서울대)=고문은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도전자에 사용하는 제도적인 폭력이다. 특징을 지닌다.

고문의 행사자는 정당성이 없는 공권력을 입고 있으며 행위 자체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문 하부문화체계가 존재한다. 고문자들은 또 양심의 압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음지적 인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료제적 계율명령체계를 만들어 "하라는 대로 했다"는 식의 수동적 도피의식을 가지게 된다.

의료인은 병원에서의 성실한 치료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인들도 캠페인 등을 통해 고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은 고문피해자 치료센터와 상담소를 설치하여 의학적 도움을 주어야 하며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고문방지協約 가입 검토

정부가 유엔평화회의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협약은 고문행위를 금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은 1948년 채택된 이래 1987년 11월 20일까지의 기간에 87개국이 가입했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협약은 고문행위를 금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은 1948년 채택된 이래 1987년 11월 20일까지의 기간에 87개국이 가입했다.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문

신체·정신적 後遺症 심각하다

漢陽大 정신건강 세미나

『고문』이란 신체·정신적 後遺症(後遺症)의 발생·발현 정도를 나타내며, 자행된 고문 피해자들의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漢陽大 정신건강연구소가 『고문』의 발생·유병률, 원인, 진단, 치료, 예방 등에 관한 14차 학술세미나를 11월 14일 개최했다.

『고문』이란 신체적·정신적 後遺症(後遺症)의 발생·발현 정도를 나타내며, 자행된 고문 피해자들의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漢陽大 정신건강연구소가 『고문』의 발생·유병률, 원인, 진단, 치료, 예방 등에 관한 14차 학술세미나를 11월 14일 개최했다.

漢陽大 金泳贊 교수(신정신과)가 주재한 표를 통해 『고문』의 발생·유병률, 원인, 진단, 치료, 예방 등에 관한 14차 학술세미나를 11월 14일 개최했다.

自矜心·타인 신뢰감 상실

中 몸이 닿는 마사지가 효과



『고문』이란 신체·정신적 後遺症(後遺症)의 발생·발현 정도를 나타내며, 자행된 고문 피해자들의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漢陽大 정신건강연구소가 『고문』의 발생·유병률, 원인, 진단, 치료, 예방 등에 관한 14차 학술세미나를 11월 14일 개최했다.

『고문』이란 신체·정신적 後遺症(後遺症)의 발생·발현 정도를 나타내며, 자행된 고문 피해자들의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漢陽大 정신건강연구소가 『고문』의 발생·유병률, 원인, 진단, 치료, 예방 등에 관한 14차 학술세미나를 11월 14일 개최했다.

『고문』이란 신체·정신적 後遺症(後遺症)의 발생·발현 정도를 나타내며, 자행된 고문 피해자들의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漢陽大 정신건강연구소가 『고문』의 발생·유병률, 원인, 진단, 치료, 예방 등에 관한 14차 학술세미나를 11월 14일 개최했다.

『고문』이란 신체·정신적 後遺症(後遺症)의 발생·발현 정도를 나타내며, 자행된 고문 피해자들의 무한히 반복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漢陽大 정신건강연구소가 『고문』의 발생·유병률, 원인, 진단, 치료, 예방 등에 관한 14차 학술세미나를 11월 14일 개최했다.

〈金泳贊기자〉

고문 歷史와 함께 출발

-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자를 적...
- ...발, 제재할 필요성이나, 하나의 체제를 지...
- ...키기위해 그 범법자나 적대자에게 대응...
- ...할 조치로서 고문이 생겼다면, 상식적으로...
- ...고문은 역사가 있고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고문이 프랑스 혁명전 계몽시대부터 비인도적인 것으로 인식되면서 프랑스인권선언은 고문을 야만행위로 정의했다.

본권을 전보다 신장시키면서 「고문의 금지」도 역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법상의 규정은 보장의 기능조건이지, 보장의 완성 충족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 한일합방 이전의 이조에서는 唐律로써 형벌과 고문을 구별치 않는 법제였으나 <사진참조>갑신정변후 박

따라서 범죄수법의 지능화에 따른 인력과 수사장비의 확충이 필요함은 물론 국민의 고문에 대한 저항의식이 따라야

日帝관현, 고문 일상화

고문근절위한 저항의식 필요

영효의 「건백서」에는 「고문의 금지와 사형의 폐지」 「잔혹한 형벌의 금지」 등의 건의가 나와 실험과, 개화파의 신분장벽을 넘어선 인간존중의사상을 엿보게 하고있다. 그러나 합방후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제도가 있었고, 일제관현에게 있어서 고문은 일상화된 습관이었다.

만 고문은 없어질 수 없다.人權은 하늘이 준 것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人間이니까.

8.15 이후에도 일제의 관료기구와 경찰및 사법제도를 온전시켜왔기에 고문의 폐습도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후 좌·우투쟁, 6.25, 독재정권의 강권통치를 겪어오면서 고문이 말끔이 씻어지기에 어려운 편이 있었다. 6.29선언이후의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기

어떠한 명목으로도 합리화해서는 안되고, 또 시킬 수도 없는 反인간적 작태인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증세와 그 치료에 대하여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는 지난 11일 한양의대세미나실에서 同대학정신건강연구소(소장: 金二泳)가 주최한 「고문피해자」란 주제의 학술세미나로써, 참석한 토론자 및 방청객들은 고문피해자의 신체·정신적증상(외국의 사례이긴 했지만)에 숙연히 몸을 추리며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병폐에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 고문이란 무엇인가. 법률적으로는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인 「자백을 강제하기 위해 가하여지는 폭력」이라고 하고, 유럽인권위원회는 「정보, 자백의 취득이나 형벌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비인도적인 처치」라고 정의하였다.

이날 연자로 나선 金二泳교수는 75년 전세계 의학자들이 모여 고문폭

고문투쟁운동 정신적 손상을 더듬어

력의 주체에 협조하지 말자는 東京선언을 소개하고, 「어릴때 충격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상으로 인하여 의식적이

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사회생활에서의 곤란 및 환청, 망상등으로 인하여 결국은 인격파탄의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의학적 치료대책은 복합적이다. 우선은 자신이 고문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맛사지를 이용하거나 동료 의식을 통한 집단치료방법 이용) 그리고 이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신체적 후유증등 개별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상을 바탕으로해서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게 해주는 일이다.

이러한 고문피해자를 위한 치료센터는 덴마크·벨기에·영국·칠레·아르헨티나등 전세계적으로 20개가 넘으며, 중앙권에서는 86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기구들

간의 자기경시와 희망박탈이 인격파탄의 주요원인이 될 수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고문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훼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문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것은 제도화된 고문이 상존하는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이라 하여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인도주의실천의 사협의회 梁吉承기획국장은 우리의 경우 고문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자신이 본 국내의 피해자들은 대·소변처리의 생리적문제에서 자기억제기능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증세였다면서, 고문근절을 위해 고문가해자의 엄격한 형사적 처벌과 고문추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피해자 해결책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보상과 상담·치료소의 설치 필요성을 말하고, 구금된 피해자가 변

타인에 대한 신뢰성 상실 자기경시·희망 박탈로 인격 파탄도 사회적 보상·상담·치료소설치 필요

건 무의식적이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프로이드의 말이 고문피해자의 치료근거가 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7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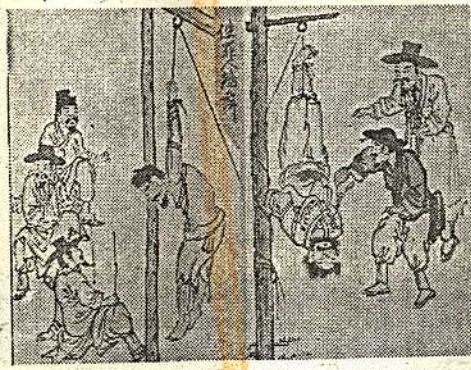
이어서 고문피해자의 증세보고가 있었던 바 신체적 손상은 ▲동통 ▲소화기장애 ▲심장계질환 ▲성기능장애 ▲운동기능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등이 있었고, 이보다 큰 문제인 정신적 손상으로 ▲인간존재로서의 자존심 상실 ▲고문경험의 반복되는 심리적 재경험과 반투현상으로 인한 계속되는 공포심 ▲ 타인

은 비판적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치료기구나 기관에게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주제발표후 토론자로 나선 韓完相교수는 『최소한 자원을 부당하게 획득하려는 계층이 그 저항세력에 대하여 가하는 제도화된 강제력이 폭력이 고문으로 나타나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같은 피해자라도 죄를 짓고 당한 경우와 죄없이 억울하게 당한 경우는 정신적인 증세가 다를 것이라 보며, 고문피해로 인한 인

호사 선입과 같이 의사도 자신이 지정할 수 있는 법적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金光一교수는 이틀모임의 결론으로 『폭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추고, 폭력이 무엇인지 알리며, 의료인도 고문참여 거부등의 올바른 대처방법을 알아야겠다』면서 『모임 자체가 시작에서부터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런 것을 시작하는 자체가 현실집에서 의미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구한말 평양감영을 드나들던 근대화가 一濟 金允輔가 그린 刑政圖일부 (左: 죄인을 鶴籠으로 다스리는 장면, 右: 코에 잿물을 먹이는장면)。

신 2년 7개월... 13개월밖에 안남아

안잡히면拷問[사실영원히 묻혀

斷罪[는 말뿐... 搜查[사실상 손떼

전민정년(金權泰씨) 45(를)고(무)한(열)의(로) 지(나)88(도)12(월)22(일)부(로) 수(배)를(받)고(있)는(李)根(安)전(정)경(감)(53)전(정)경(감) 공(안)부(실)장(이)1(월)2(일) 9(월)4(일)후(가)불(과)1(년)1(개)월(밖)에(남)지(않)았(는)데(도)李(씨)검(査)를(위)한(수)사(할)경(우)이(사)실(상)중(요)한(사)태(여)서(이)李(씨)의(대)한(형)사(처)벌(은)어(정)중(적)으로(보)인다. 양(이트)1(년)1(개)월(이)내(에)李(씨)를(검)거(해)법(정)의(세)우(지)못(할)경(우)李(씨)에(대)한(단)죄(는)불(로)5(공)시(점)의(고)문(선)장(의)대)한(규)명(도)영(영)의(이)루(어)지(않)을(공)산(이)크(다).

李(氏)의(대)한(형)사(처)벌(은)어(정)중(적)으로(보)인다. 양(이트)1(년)1(개)월(이)내(에)李(씨)를(검)거(해)법(정)의(세)우(지)못(할)경(우)李(씨)에(대)한(단)죄(는)불(로)5(공)시(점)의(고)문(선)장(의)대)한(규)명(도)영(영)의(이)루(어)지(않)을(공)산(이)크(다).

李(氏)의(대)한(형)사(처)벌(은)어(정)중(적)으로(보)인다. 양(이트)1(년)1(개)월(이)내(에)李(씨)를(검)거(해)법(정)의(세)우(지)못(할)경(우)李(씨)에(대)한(단)죄(는)불(로)5(공)시(점)의(고)문(선)장(의)대)한(규)명(도)영(영)의(이)루(어)지(않)을(공)산(이)크(다).

李根安 잊었나

이 하... 8. 1... 이 하... 8. 1... 이 하... 8. 1... 이 하... 8. 1...

李(氏)의(대)한(형)사(처)벌(은)어(정)중(적)으로(보)인다. 양(이트)1(년)1(개)월(이)내(에)李(씨)를(검)거(해)법(정)의(세)우(지)못(할)경(우)李(씨)에(대)한(단)죄(는)불(로)5(공)시(점)의(고)문(선)장(의)대)한(규)명(도)영(영)의(이)루(어)지(않)을(공)산(이)크(다).

日字: 1988. 12. 20 所載: 2

19일 오후 2시 서울鍾路구 蓮池동 기독교회 관공실에서 「反拷問」 반물림인사선언대회 「다」 이생적인 전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이날 대회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인원위원회(위원장 박鍾基)가 세계인사선언40주년을 맞아 「해방이후 지금까지 집권자를 이 정권부지의 노구로 자행했던 고문과 폭

정을 고발 시민운동

추진 「지난해 11월 南營洞 41인분부내공판

窓

反拷問의 절규

「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金大中 韓民黨 총재를 비롯 金權泰 權仁淑 李泰讓 金英愛 씨 등 5명의 「하」의 대표적 고문피해자 5명이 나와 자기 자신들의 체험을 공유했다.

실제 풀려가자마자 수사관들로부터 「내가 공산주의자임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고문으로 죽는 수밖에 없다」는 협박과 함께 전일수영기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해 결국 양쪽 허벅지 그들이 자폭한 각본의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들이 기소했던 사건인 명백한 양형 조건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崔山민 南營洞 41인분부내공판에 속죄한 혐의로 구속됐던 崔原州와 산서전투인 金英愛 씨의 증언의 충실점이었다.

被害者 체험공개에 분위기 숙연

이제 이미 韓民黨 韓進 金權泰 씨의 생생한 고문체험이 발표됐을 때 일부 참석자들은 눈시울에 물었다.

「그동안 집권자들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인사선」의 파괴를 자행했습니니다. 고문의 폭력도 종언하

지만 고문을 마귀위한 시민운동이 더욱 필요함을 「다」 한 참석자가 세계인사선언40주년을 맞아 아진노부 제인민대양을 가여하지못한채 「반고문 반물림 인사선언」을 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안타깝게 하였다. <自承勳기자>

평생인권센터 SARANGANG, Center for Human Rights, Korea

“나도 이근안에게 당했다” 폭로 잇따라

남민전등 굵직한사건마다 단골로 고문

“전기고문 예사...관절뽑기 명수”

1988.12.22

김근태씨를 전기고문한 '성명 불상의 전기고문기술자' 이근안(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경감은 그동안 각종 시국관련사건을 수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감은 79년 남민전 사건을 비롯, 80년 기자협회사건, 81년 무림사건. 전노련사건, 86년 반체 동맹사건 등 갖가지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인사들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 구타 등을 가해 범행을 강제 자백받아 날조해 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전기고문과 '관절뽑기' 고문에 탁월해 출장고문까지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남민전사건 관련자 이수일(36)씨는 "이 경감은 수갑을 채워 의자에 앉히고는 박달나무 몽둥이로 허벅지를 1시간 가량 찜어댔다.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

는데 이 경감은 '불편 한 자루면 모든 걸 끝낸다'며 취조 도중 불펜끝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허벅지를 찢어댔다. 이때의 통증은 방망이로 찜을 때의 통증과 똑같았고 1주일 동안 걸을 수가 없었다"고 9년 전의 악몽을 되새겼다.

역시 21일 석방된 반체동맹사건의 박종렬(27)씨와 이민영(26)씨는 "이 경감으로부터 통닭구이 고문과 고춧가루물 고문을 기절할 때까지 받았다"면서 "우리와 같은 사건의 우종원(27)씨는 '관절뽑기 고문'을 당하다 기절했는데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는 다시 고문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이 경감의 장기는 관절뽑기였다"며 "엄청나게 큰 손으로 팔을 확 잡아당겨 관절을 뽑았다가 다시 쪽 떨어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80년 8월28일 남영동 대공분실

로 연행돼 10월2일까지 조사를 받은 김태홍(46·당시 기자협회 회장)씨는 "이 경감이 '내가 남민전사건 주모자들인 이재문 신향식 등을 바로 이 자리에서 고문했다' '철성판을 내가 발명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김씨는 "시멘트 바닥에 3시간 동안 무릎을 꿇려 놓았다가 이 경감이 자기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면서 "그는 완벽한 '살아 있는 고문기구'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당시 이 경감은 중앙정보부 등 타기관에까지 초빙돼 고문을 담당했다고 이 경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80년 7월7일 기자협회사건과 관련, 연행돼 3일간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라원규(45·당시 서울 도봉구청 하수계장)씨는 "팬츠 하나만 남기고 발가벗긴

채 이 경감은 그 큰 주먹으로 얼굴·배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구타했다. 유리제털이로 얼굴 정면을 맞아 파를 칠칠 흘리기도 했다"면서 "이 경감 등 3-4명이 옥조덕에 목을 눌러 물고문을 해 3차례 실신했다"고 말했다.

라씨는 그 후 4년여 동안 상반신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고문후유증에 크게 시달렸다.

이은부 경기도경 대공과장은 "이경감이 치안본부 근무 시절 남민전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고문 사실은 모른다. 앞으로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따로 나설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당사자들이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때 가서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성 파멸' 고발하는 충격 영상

그림마당 민 31일까지 '김영수 고문사진전'



이 전시장에 걸렸다. 그러나 김영수씨가 전시회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사진집 출간은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인쇄소에서 꺼려 결국 판화지를 끼워 인화의 밀도를 줄인 사진으로 만들고 김근태씨가 쓴 글 '고문담당 기술자'를 넣어 1백부 한정본으로 찍었다.

김씨의 이번 사진전은 돌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의 일관된 사진작업인 '사람 시리즈' 네번째에 해당한다. 86년까지 여섯 차례 개인전을 통해 판자촌·도시빈민 등 열악한 생존조건을 표현해 왔던 그는 87년 들어 '사람'이란 주제의 작품전을 잇따라 가졌다.

첫번째는 사진의 현장성을 극대화한 '등신대'(실물크기) 작품을 내렸으며(두손 갤러리) 두번째는 우리를 옥죄는 억압상황의 상징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사진들로 마련됐다(바탕골 미술관). 작품전 시리즈 세번째는 제국주의·군국주의의 잔재인 '교복'을 주제로 했다. 이번 '고문'전에 이어 다섯번째로는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한국의 나무탈 33개를 민속학자 심우성씨의 도움을 받아 촬영, 내년 3월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소설·사회과학 책을 열심히 읽어, 현실을 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는 그러나 "투쟁적인 이념이 앞질러가는 예술보다는 작품 자체로 발언하는 것이 체질에 맞는 것 같다"며 민미협 사진분과 등 조직활동은 주로 후배들의 몫으로 돌린다.

사진작가 김영수씨는 부산출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무단가출해 서울에 올라와 왔은 고생 끝에 대학을 중퇴한 뒤 사진에 몰두, 현재 혜화동에 있는 사진작업실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오 룡 기자)

"현장고발보다는 고문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간성 파괴과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하는 사진작가 김영수씨.

물고문·통닭구이·비행기태우기·전기고문·스탈린고문·혀뽑기·바늘고문... 고문에 의한 충격적인 인간성 파멸의 현장을 영상에 담은 사진전시회가 지난 23일 열려 오는 31일까지 그림마당 민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작업의 장본인은 지난 15년 동안 카메라 피인더를 통해 인간을 바라보고 이 사회의 진실을 추적해 온 사진작가 김영수(42)씨. 이번 사진작품들은 물론 '실제상황'이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장면을 찍은 것이다.

"사진은 시각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반면 그만큼 책임성도 따릅니다. 고문 사진전도 목적의식만 앞설 우려가 있어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애썼습니다."

사진이 속명적으로 갖는 현장성, 고발성과 예술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현실 파괴 사

이의 갈등을 그는 말하는 듯했다. "이것이 오히려 현실의 아픔을 희석시키고 실제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옥되게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덧붙이는 그의 얘기에는 1년반에 걸친 준비과정에서 겪었던 절절한 고민이 배어 있었다.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이후<세계의 고문>(정재룡 씀) 등 자료와 피해자의 숭한 증언을 바탕으로 영상표현이 가능한 장면을 구성해 나가면서 이 주제는 그에게 '사진 인생을 걸고 소화해 내야 할 도전의 대상'이 되었다.

막상 실연은 지난 10월 행위 예술가 무세중씨와 한 여성 연기자의 참여로 하루 동안 이뤄졌다. 화가의 도움을 받아 매 맞은 콧등을 몸에 페인팅해 넣었으며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 수갑·포승줄 등 꼭 필요한 소도구 외에는 배척을 없었다.

이렇게 촬영된 19편의 사진

“경악과 충격의 현장” 고발

‘고문의 비인간성’을 영상으로... 사진작가 김영수씨

사진은 입이 크다. 진실이 담긴 한장의 사진은 백사람의 웅변보다 소리가 크고 글보다 값지다. 진리의 길이 비좁듯 좁은 파인더를 통해 숨은 진실을 생생하게 포착한 사진은 진실을 감추려는 다수의 강변을 잠재우게 한다. 23일부터 그림마당 민에서 전시되는 사진작가 김영수씨(42)의 「사람4」는 우리시대에 자행된 「고문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최초의 사진전이다. 「反고문·反폭력의 성토와 「고문은

아예 없다」는 사람들의 고성(高聲)이 튀어오르는 시점에서 김영수씨의 「소리없는 아우성」은 兩者의 주장보다 더 차갑고 잘 들린다. 물고문·전기고문·스탈린고문·제트기고문·폭격기고문·허뽽기고문... 고문당하는 사람은 그 수단에 소름이 돋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는 관객은 고통의 실감보다 物性化(物性化)한 인간의 모습에 전율하게 된다.



김영수씨의 사진 「손톱고문」(부분). 金씨는 「고문展」이 「고문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왼쪽은 작가 김영수씨)

金씨의 고문사진들은 일단 연출에 의해 강조된 진실이다. 그런 점에서 「액면사실」보다 힘이 약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보는이에 따라 고문을 감압수단으로만 이해하겠지만 나는 그 수단뒤에 숨은 인간의 심성, 즉 내면화한 불합리와 감히고 읊조린 양심 등을 같이 보여주려 했다」는 말로 「사실을 보려다 진실을 놓치는 愚」를 경계한다.

金씨는 피해자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해 전위예술가 巫世衆(우세중)과 배우가 벌이는 퍼포먼스로 고문장면을 촬영했다. 가로 세로 1m가 넘는 사진에서 보이는 경악과 충격의 현장은 그래서 작품으로서의 예술성보다 더 단단한 메시지의

“우리 시대의 아픔, 증언과 자료 토대로 연출 고통당한 수많은 사람에게 累(누)끼칠까 걱정”

골격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사진, 구호는 구호이죠. 정치적 의식으로 무장한 예술인들의 태도는 못마땅합니다. 특히 고문展은 목적의식이 앞설 우려가 있어 사진예술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작가의 역량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시회를 앞두고 포스터와 사진집을 출간하는데 애를 먹었다. 고문주제의 작품이라

업자들이 선뜻 인쇄하려 나서지 않았고 전본용 포스터 역시 작가의 까다로운 입맛에 걸려 쓰레기통으로 날아갔다. 포스터까지 작품의 한몫으로 여기는 그는 특히 예술적 自尊을 굽히는데 인쇄한 작가로 알려져있다.

80년대 이전 기념사진을 찍듯한 가벼운 워밍업류의 작업을 마친 金씨는 「사람」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시대정신이 담긴 「역사적 환경」에 경도했다. 시리즈는 「등신

대」(실제의 크기와 똑같은 사람사진을 생각해 보라), 2는 억압구조 속의 사람을 뜻한 「주민등록증」, 3은 갇힌 상황의 사람들인 「제복」, 4가 이번에 전시되는 「고문」이다. 「사진매체가 원래 舶來品(舶來品)아닙니까. 그러나 그 뿌리는 이땅의 시대에 두어야 하고 서양식 기법의 도입은 연습과정에서나 할 일이죠」

그는 시리즈5부터 「動的인 전통인 恨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나무

탈을 찾아 나설 예정이라고. 「예술가는 평가를 마친 관객이 작가에게 주는 敬語(敬語)라고 믿기에 그 자신은 진실과 순수를 생명으로 하는 匠人(匠人)으로 남으면 목욕이 없겠다고 한다.

「고문展은 모두의 아픔을 나타냈지만 결국 내 작품으로 남고 싶습니다. 갖가지 고문종류중 나의 사진文法으로 영상표현이 가능한 것만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문으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累(누)가 안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金씨는 사진집에는 어쩔 수 없이 툴났은 판화형식의 작품이 실렸지만 전시장에선 원화 그대로 고문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다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孫哲柱(손철주) 기자)

拷問 폭로 잇따라

金權泰씨 「裁定신청」인정뒤 時局석방자들 구체事例 제시

전기고문 불고문 관철까지 등 5공화국기간에 치안본부 대공분서의 압명종 비인간적 고문수행, 피해자들이 최근 신변 사면되면서 구체적 고문사실들로는 고문수행 자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파란이 일고 있다.

정몽준의 최양한 특재관할을 유지하기 위해 5공화국의 서치안본부와 임선정철안기부 보안사등 수사기관에서 저지른 추악한 고문의 실상은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의 공문장과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수 없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등 때문에 고발사제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권(權)의 고문정찰관인 文貴顯씨가 처벌을 받고 최근 金權泰씨의 고문정찰관들의 재판의 일부는 대공분서의 5공화국 고문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발이 부조리를 낳고 있다.

5공화국에서 고문으로 처벌을 받던 사면된 차철환과 고문치사건등 일부 수사의 정황은 전인이라 고문피해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고문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의 착수할 만하다.

한편 최근 고문사예외등의 대해 치안본부는 자체조사를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피한 채 사면부의 판단에 맡겨두는 데 따른 수습적인 자세를 보

이들등 「고문수행」의 구체적 사실 드러내고 있다.

전기고문 폭로사례 橫泰 金 안분서장은 각종 시국관련 건의차출(27)을 면(26)의 해에 대한 고발을 잇따라 받(46)은 수감자의 잔혹한 고

문사태를 폭로하고 나섰다.

80년 8월 28일 南營洞 치안본부 대공분서로 연행된 10월 2일까지 조사를 받던 金泰씨(31) 시멘트파단에 3시간 가량 무릎을 꿇려 놓았다.

가 수감되어 자신의 무릎이 로 허벅지를 짚고 그 자리에 서 정신을 잃은 일도 있었다.

다면서 그는 한눈을 뜨면 밧발이 서 있었으며, 형사관할 자신이 발명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가자형사선과 관련 80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인 8일 저녁 7시까지 이를 南營洞 치안본부 대공분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羅元泰씨 46. 당시 서울도청 구청하

문기출차라는 비난을 받음 고 있다.

李根安(전)의 경기도청 공 안분서장은 각종 시국관련 건의차출(27)을 면(26)의 해에 대한 고발을 잇따라 받(46)은 수감자의 잔혹한 고

對共분실 「電氣담당」전문가

李根安경감으로 확인인 告發

治安本部선 진상규명 회피 은폐舊態 못버려



석방자들의 철야농성 張琪杓 金鉉獎 金南柱씨등 12·21 석방자들과 수배자 가족 등 1백50여명은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 3角동 전민협사무실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중 60여명은 양심수들의 전면석방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석방은 순도환에 대한 정치적사면의 흥정으로 이뤄졌다고 규탄하고 光州화살 5공비리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등을 요구했다.』

문사태를 폭로하고 나섰다.

80년 8월 28일 南營洞 치안본부 대공분서로 연행된 10월 2일까지 조사를 받던 金泰씨(31) 시멘트파단에 3시간 가량 무릎을 꿇려 놓았다.

가 수감되어 자신의 무릎이 로 허벅지를 짚고 그 자리에 서 정신을 잃은 일도 있었다.

다면서 그는 한눈을 뜨면 밧발이 서 있었으며, 형사관할 자신이 발명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가자형사선과 관련 80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인 8일 저녁 7시까지 이를 南營洞 치안본부 대공분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羅元泰씨 46. 당시 서울도청 구청하

수거조는 2차선인 3. 명이 3차례에 걸쳐 불고문을 해 그때마다 심신했다 고 밝혔다.

이밖에도 남민청사건등 조사를 받았던 李鐵日씨(36) 반제동맹당사건으로 연행됐던 馬榮植씨(29)등도 李根安으로부터 「용담구」 관련 증거를 불고문 「전기고문」 등의 각종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의 한 관 계자는 金權泰 씨가 「전기고문기출차」로 지목한 李根安경감에 대한 수사여부와 관련 「현재로서는 법원의 재심신청절차에 내러져 있는 만큼 독자적인 수사를 발의하면 수사의 착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金씨의 변호인 姜福善변호사는 「23일 金權泰씨와 만나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자로 지목된 京畿도청 공안부장 李根安경감은 21일부로 출장중이므로 사실에 나가지 않고 있다.

水原시청 중구 수원시청사 에 출장중인 京畿도청 공안부장은 「21일 새벽 출장 자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도청 李根安대공과장도 「판단 출장중이겠

【水原 拷問전부 李根安 任眞 柳기자】 金權泰씨들의 의뢰고

나 李根安을 고발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水原 拷問전부 李根安 任眞 柳기자】 金權泰씨들의 의뢰고

80년 8월 28일 치안본부 4부 대공분서의 고발하고 85년 3월 30일 京畿도청으로부터 전인 李根安(84년 1월 석방

문자로 지목된 京畿도청 공안부장 李根安경감은 21일부로 출장중이므로 사실에 나가지 않고 있다.

水原시청 중구 수원시청사 에 출장중인 京畿도청 공안부장은 「21일 새벽 출장 자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도청 李根安대공과장도 「판단 출장중이겠

문자로 지목된 京畿도청 공안부장 李根安경감은 21일부로 출장중이므로 사실에 나가지 않고 있다.

水原시청 중구 수원시청사 에 출장중인 京畿도청 공안부장은 「21일 새벽 출장 자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도청 李根安대공과장도 「판단 출장중이겠

한글신문사
HANJANG NEWS
1988.12.23

14

所載:

日字: 1988 12 23

分類番號: 703

공소장(1988년 12월 14일 회피)

○최근 시국사법선방을 계

관심집중

서 발꾼

보시곤혹

기르 과거 50여년 동안의 동안
사건 관행자들이 고문사실은
몰랐고 나서자 趙繼賢(차안문)
부장을 비롯한 차안문부관제자
들은 『도대시 차繼賢(차안문) 고문치
사사건과 같은 고문의 압력이
되살아났다』며 몹시 곤혹스러
워하는 모양이다.

이제야 『정정안』 편지적인
정판마저 회피한 『정판(정판)』에
인사건의 재판을 통행서, 노모
지사건(정판)고소고발의 영향
경우 검찰수사를 통해서 고문
사실여부가 밝혀지지않았다』
며 자체감찰이나 수사에 착수
할 의사가 있는 모양이다. 『정판(정판)』

수법적 자제

이제야 차안문부 고문판제자
들의 압력중 검찰 고문정판의
『정판(정판)』 정판(정판)만 정판(정판)이
새로운 시대정신의 부흥을 전
국적인 자체수사에 나서지않는
자기책신의 의지를 보여줄수 있
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지적도.

東亞日報社調查部

인권을 위한 활동가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Korea

140-120 서울 용산구 양재동 7-12 3층 301호 전화 : 773-9182 팩스 : 773-9182

전민동맹의 리더를 꼬문질러

前民勇盟의장 金權泰씨(50)인 것이
고문사건의 자진성명을 심리
했던 재판부가 이미 고문
사실을 인정해 기소할 4명
의 결핵환자의 전고문을 가
했던 것으로 확인된 「선명물
상자」가 현 경기도청 공안부
고문과 「고추가루를 고문」을 기
단 고문을 추진 「블렌드 고문」
에도 능했다」고 주장했다.
88년 경기도청에서 조사한
은 반체통맹사건의 朴忠烈씨
(26)와 李仁榮씨(26) 등은
「추진장」으로부터 「물탄약」의
고문과 「고추가루를 고문」을 기
단 시국 · 유안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사태를 수집해
내주출 영영으로 李경관을 고
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金씨 사건과 2명
도문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金씨 고문사건의

실장 李根安(50)인 것
으로 金씨의 피해 확인과 李
경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추가 소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 검찰은 초상권 침해에
포다시 빠졌다.
金權泰씨의 변호사 崔인규씨는
고문사실에서는 조사를 받았던
南民戰 사건 · 반체통맹 사건 관
련자들도 추진장을 「판명불기」
「전고문」과 각종 고문을 자
행한 「고문기록」로 지역
소씨의 崔인규씨로 추진장을 검
찰에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어 검찰이 고문을 또한
차례 판명할 것으로 보인다.

金權泰씨의 변호사 崔인규씨는
고문사실에서는 조사를 받았던
南民戰 사건 · 반체통맹 사건 관
련자들도 추진장을 「판명불기」
「전고문」과 각종 고문을 자
행한 「고문기록」로 지역
소씨의 崔인규씨로 추진장을 검
찰에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어 검찰이 고문을 또한
차례 판명할 것으로 보인다.



李根安 경감

金씨가 「88년 1월 23일 21시경
지인과의 대화중 李根安의
88년 1월 23일 21시경
金씨 「88년 1월 23일 21시경
李根安의 88년 1월 23일 21시경
金씨가 「88년 1월 23일 21시경

잇단 폭로로 경찰 "초상집"

부인 선본부안 치소 고소... 1주일 來 피해자들
1988.12.23

특검검사가 독자적인 수사를
통해 李경관을 추가 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李경관을 「고문기록」으로 지
목하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
따르자 경찰의 고충을 감추
지 못하면서 「추진장」이 치안부
부고문시절 南民戰 사건을 시
국사건을 담당하였는지 사실이 지
만 고문의 증거가 영외연이
라고 일단 부인하였던 것이다.
李경관은 「88년 10월 10일 치
안본부에 근무하다 88년 경
감으로 승진 88년 10월 경
고장으로 전출해 金씨 사건 수
사에 참여한 영외연이 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金씨 변호인 「전고문」
은 李경관의 기록이 판명하
면 李경관의 기록이 판명하
면 검찰은 「전고문」의 부인
을 인정 88년 10월 10일 부
동인 「추진장」과 「반체통맹」
조사부의 「추진장」인 南民戰 사건 관련
자들의 「추진장」이 88년 4월 22일
南民戰 관련자들을 위해 가
한 「추진장」을 「추진장」에서
발령하지 않고 있다. 증거가 없
고 부인하면서 부인하고 있다.
이것 도문 韓進美(유일파)
전인 「추진장」 관련 고문의
고문사실은 「추진장」의 수
사 영외연 「추진장」의 수
사 이등 「추진장」의 수
사 이등 「추진장」의 수
사 이등 「추진장」의 수

金씨의 「88년 1월 23일 21시경
지인과의 대화중 李根安의
88년 1월 23일 21시경
金씨 「88년 1월 23일 21시경
李根安의 88년 1월 23일 21시경
金씨가 「88년 1월 23일 21시경

Handwritten notes and stamps on a piece of paper.

'88 초점 7

1988. 12. 24 철퇴맞은 고문 308

88년은 고문을 자행한 부도덕한 공권력에 대해 그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고문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인권'에는 한 줄기 빛을 안겨준 해였다.

이제껏 갖은 형태의 '의압'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당한 인간 이하의 대접들을 드러내놓기 꺼려해 왔던 고문 피해자들은 지난 1월29일과 12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우리 시대의 금기로 존재하여 왔던 것이 깨지는 광경을 통해 바라보았다.

1월29일 대법원은 부천서 성고문사건 피의자 문귀동(41)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권인숙(25)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신년 벽두 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로써 문씨는 사건 발생 7백77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지 24개월 20일 만인 지난 7월23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문씨는 지난 12월6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에는 김근태(42)씨의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져 공권력에 의한 고문이 또다시 철퇴를 맞게 됐다. 김씨를 고문한 사실이 재정신청 접

수 뒤 22개월만에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백남은(53) 김수현(55) 김영두(53) 최상남(41)씨 등 4명은 곧 재판에 회부된다. 백씨 등 고문경찰관 4명은 형법 125조(폭행·기혹행위), 30조(공동범죄), 31조(교사법), 38조(경합범)의 적용을 받아 5

첩었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역할 및 갖은 악랄한 비방을 서슴지 않았던 '공안당국'과 그 하수인으로서의 검찰이 저지른 범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김씨의 경우 '이해' 못하여 고문을 지휘·교사한 이들이 재정신청 결정과정에서 '혈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면책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그간 술한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데 어느 고문경찰관은 "나가서 실컷 떠들어 봐라. 증거가 없지 않느냐. 고문 때문에 내 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고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거침없이 했다는 것이다. 이

침범들은 아무도 들으려 들 수 없는 밀실에서 "죽여도 좋으니 항복을 받아내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구타, 통닭구이고문, 물고문, 고춧가루물고문, 불펜심문, 권철베기,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심지어 성고문까지, 생각해낼 수조차 없는 고문이란 고문은 모두 실행에 옮겼다. 고문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고 오로지 '항복' 밖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점을 고문자들 과 그들이 속한 '체제'가 노린 것이어서, 그 '체제'는 반대자들에 대한 용정으로 육체적·정신적 파괴와 아울러 예방의 효과마저 일정부분 거두었다.

밀실의 인권유린 두차례 폭로 성과 지휘·교사 상층부 전혀 타격안받아

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씨 등의 경우 앞으로 선임될 공소유지 담당 지정변호사(특별검사)가 기소장을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 까지도 가능하다.

이렇듯 일정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김근태·권인숙 두 사람이 버릴 수 없는 불만은 비슷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사건을 조작·왜곡·은폐한 공권력의 상층구조가 일침의 타격도 입지 않은 채, 한치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버젓이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권씨의 경우 검찰의 수사결론을 뒤

는 거대한 공권력이 철벽처럼 지켜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법이 금지하는 고문을 피해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고문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문에 의한 자백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에서 고문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통성을 갖지 못한 공권력은 고문 등 폭력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폭력을 묵과하는 단계를 넘어 조장하기에 이른다. 군사독재체제인 5공화국 아래의 체제수호의

여지껏 치안본부 대공본실·공안본실, 보안사, 안기부 등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으나 고문자들이 용분의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88년 1월과 12월의 두 사건은 용기있는 두 사람과 그 주변의 양심적인 세력이 겨루어낸 값있는 열매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을 내던진, 의로운 싸움 끝의 승리였기 때문에 한결 소중했다.

이 소중한 승리를 바탕으로 고문과 고문을 옹호하는 세력을 겨냥한 의로운 싸움은 더욱 끈질기게 전개될 전망이다.

시국사범 고문피해 성난폭로 잇따라

전기봉고문·무차별 구타로 신체마비등 후유증 안기부·보안사 관련자도 조사 요구

경찰, 안기부와 보안사 등 수사기관에서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된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찰관은 물론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검찰과 군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스유니버스 대회 폭파 음모사건
80년 '미스 유니버스대회 폭파 음모사건'으로 계약사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 82년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황인오(33)씨는 자신이 강원 정선경찰서 치안본부특수대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김철부 등에서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80년 6월27일 체포돼 정선경찰서에서 밤새도록 손과 발목에 수갑을 찬 채 코에 물북

기 고춧가루 물고문·비너뽑기 등 닭구이·무릎에 몽둥이를 끼우고 경찰관 3명이 교대로 뛰어내리기·발기벗고 거꾸로 매달려 비행기 타기 7~8명이 몽둥이와 고무호스로 무차별 구타하기·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기 등 각종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황씨는 이때 고문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권기호 정선경찰서장과 함성수 수사과장을 지명하고 있다.

황씨는 또 서울로 이첩돼 6월28일 계약사 합수본부 산하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당시 특수대장 안희상 총경(87년 사망) 지휘 아래 윤충훈·오이무개·유이무개씨 등 경찰관들과 헌병 7~8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뒤 7월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경위에게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또 7월2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군검찰 취조과정에서 8월1일 수사관 김철부장 신건수 대위의 지시를 받은 헌병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황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의 여동생(당시 25살)이 6월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하실에 있던 치안본부 특수대장실로 불려와 안희상 총경의 지시를 받은 특수대 3반장 권이무개 경감의 지휘하에 윤충훈씨 등 3명의 경찰관이 황씨 및 함께 조사를 받던 권운상(35)씨 등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발기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워 코에 물을 붓는 고문을 두차례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와 같이 고문을 당한 권운상씨는 82년 석방후 3년여 동안 하반신 마비를 일으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등 고문후유증

에 크게 시달려야 했다.

◇제헌 의회 사건
지난 86년 11월 '제헌의회'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 이듬해 1월까지 50여일간 불법구금당하여 고문을 받았던 이 사건 관련자 김성식, 윤성규, 김찬씨 등은 "안기부에서도 통닭구이, 무릎사이에 각목을 끼고 짓밟기, 무차별 구타 등 악랄한 고문이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김성식씨는 "당시 사건을 총괄한 사람은 박희방씨로 알고 있으며 우리를 직접 취조한 사람은 안기부 1국단 소속 강 계장(별명 강타)님이었다"고 밝히고 "당시 강 계장은 팀장이면서 직접 우리를 고문했으며 인상착의는 일본 사무라이를 연상시킬 만큼 눈이 가늘고 키 1백67~68cm의 단단한 몸집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나 자신을 직접 담당

5월 보안사에서 1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한 김문수(38·당시 서노련 지도위원)씨는 "전기고문, 고춧가루물 고문, 전기봉고문과 심한 구타로 수사를 받는 동안 앉지도 못하고 소변도 못볼 지경으로 전신이 망가져 검찰에 송치된 뒤 고영주, 정진규, 김사에게 고문흔적을 보여주며 이를 호소했으나 무시당했고 3차례에 걸친 고문흔적 증거보전 신청도 서울 형사지법과 대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합계 연행된 14명이 보안사소속 수사관 20여명으로부터 갖은 고문을 당했으나 이들이 사복을 입은 데다 '사정' '전무'라고만 불러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사건 담당검사 사와 당시 송과 보안사 근무자들을 통해 밝혀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전신이 결린다"고 밝혔다.

안명기 변호사는 "법원이 김근태씨 사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과오를 지적한 것인 만큼 검찰로서도 뼈아프게 반성하는 자세로 이 경감뿐 아니라 모든 공범자와 교사·방조범들을 낱말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며 "김씨 사건 이외에도 그간 문제되었던 많은 고문사건의 진상을 밝혀냄으로써 고문을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검찰권의 위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1988. 12. 25

해 취조했던 사람은 30대 초반의 김담판이라는 조사관이었는데 당시 외국어대 중국어과에 위탁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함께 조사했던 1백85cm 키의 '깍'이라는 조사관은 이씨 성을 갖고 있고 경찰 간부후보생 출신의 30대 초반이었다"면서 "이들에게 하반신 전체가 멍들어 검게 변할 만큼 고문을 받았으며 이들은 안티프라민 등을 주어 멍을 빼게 한 뒤 다시 고문을 가하곤 했다"고 말했다.

◇서노련 사건
서노련사건과 관련 지난 86년

1003

日字: 1988. 12. 26

所載: 국민일보

“醫師들이 고문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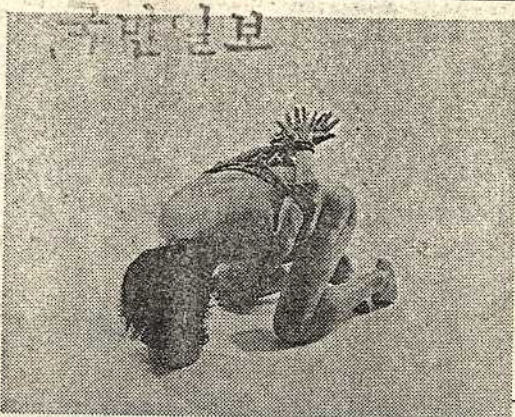
코펜하겐 ‘고문병원’ 연구보고서 밝혀

『의사와 간호원등 병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

이는 코펜하겐의 고문피해자를 위한 병원 「입게 캄프 게네프케 클리닉」의 환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 병원 설립자 게네프케박사는 지난 6년간 고문피해자들을 치료하고 고문사제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문행위는 의료종사자들의 참여하에, 혹은 최소한 이들의 묵시적 동의아래서 행해졌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만약 의사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고문이란 것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게네프케박사는 2만5천여 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자행된 고문행위에 직접, 간접으로 간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체와 정신을 함께 파괴하는 고문. 仁術을 베풀어야 할 의료진의 참여로 고문기술은 날로 잔화해져 가고 있다. (사진은 고문을 주제로 한 김영수 작품전 중에서)

되고 있는 나라는 90여개국. 고문당한 이들 난민은 구타당하고 손이나 팔이 묶여 며칠씩 매달리는 가혹행위는 물론 전기고문.

의 군의관들이 고문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은 고문당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파악, 고문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

南美선 군의관 직접가담 ‘효율’ 극대화 ‘죽지않을 최악의방법’ 동원... 정신적 후유증 심각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제강생 연구센터』란 공식명칭을 가진 이 진료소는 지난82년 덴마크정부 지원과 개인기부금으로 게네프케역사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관이다. 의사 심리학자 물리치료사등 30여 명의 진료소 직원이 연간 70~1백 명의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이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2만4천여명에게 망명처를 제공한 실적을 갖고 있는 덴마크에 망명을 요청한 「정치적난민」들의 30%가 고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지금도 고문이 자행

물고문등과 함께 공갈·협박과 같은 정신적인 고문까지 경험했으며, 그 결과 外傷·질병은 물론 심기능장애·공포증·착한·환각·악몽·자신감 및 자존심 상실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강생연구센터의 정신과전문의 페터 베스트씨는 『우리는 지금까지 의료종사자들이 고문현장에 직접 가담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고문이 이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자행됐음을 알게됐다』고 말한다.

이 연구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우루과이 칠레 등지에서는 수백명

내 조연해 주기도 하고 죽지 않도록 갖가지 방법이나 고문강도를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 심리학자들은 피고문자의 심리상태를 파악, 보다 효과적인 정신적 고문을 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베스티박사는 이러한 정신적 고문이 물리적인 가혹행위보다 그 피해가 훨씬 크다고 밝히면서 고문의 목적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파괴시키고 국민들을 통제하기위한 공포정치를 확산시키는 것이 고문의 목적이 되고있다』고 지적한다. <코펜하겐=AP 연합뉴스>

일상회담 비문명적 폭력 고문



고문기술자들 1988.12.27

“지금은 내가 당하
 가 되면 내가 그 고
 서 줄테니 그때 복수해
 '성명불상의 고문
 알려진 이근안(50) 경
 안분실장이 85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
 씨에게 전기고문을 하
 한 말이다. 이 경감은
 신의 말대로 '민주주의
 대'에 서게 됐다.
 이 경감은 그때 장난
 눈빛으로 이런 말을 하
 다. “내 형님은 훨씬 더
 데 지금 안 계서서 다
 알아라.” 그가 얘기한
 누군가. 아직은 성명불상
 남'의 존재가 백일하에
 날도 멀지 않은 듯 싶다.
 이 경감을 기억하는
 해자들은 그가 매우 특
 모를 보였다고 전한다.
 의 경우 여러 날을 한방
 이 기거하다시피 하며
 문을 하게 되면 고문자
 문자 사이에도 일종의
 것이 생겨나 차츰 느슨
 마련인데 이 경감은
 것. 그는 시종일관 “너

“지금은 내가 당하고 민주화
 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 줄테니 그때 복수해라!”
 성명불상의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50) 경기도경 공
 안분실장이 85년 9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근태(42)
 씨에게 전기고문을 하기 직전에
 한 말이다. 이 경감은 이제 자
 신의 말대로 '민주주의의 심판
 대'에 서게 됐다.
 이 경감은 그때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
 다. “내 형님은 훨씬 더 무서운
 데 지금 안 계서서 다행인 줄
 알아라.” 그가 얘기한 '형님'은
 누군가. 아직은 성명불상인 그
 남'의 존재가 백일하에 드러날
 날도 멀지 않은 듯 싶다.
 이 경감을 기억하는 고문 피
 해자들은 그가 매우 특이한 면
 모를 보였다고 전한다. 즉 보
 의 경우 여러 날을 한방에서 같
 이 기거하다시피 하며 취조 고
 문을 하게 되면 고문자와 피고
 문자 사이에도 일종의 정 같은
 것이 생겨나 차츰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이 경감은 달랐다는
 것. 그는 시종일관 “너희같은

“말개이는 없애 버려야 한다”며
 이를 갖고 덤벼들었다고 한다.
 이런 점이 그가 대공 공안 분야
 에서 '유능한 수사관'으로 입지
 하게 된 바탕이 된 것 같다.
 80년 7월 '미스유니버시티대회
 폭파음모사건'으로 남영동에서
 전기고문을 당한 권운상(35)씨

'가명' 즐겨 쓰며 철저한 신분위장 권력이 싸고돈 반인간의 독버섯들

“이 경위(당시 계급)는 예측
 불허였다. 갑자기 방에 들어와
 겁주 큰절을 하고 존재말을 쓰
 며 횡설수설하고는 휘 나갔다
 불시에 들이닥쳐 개처럼 폐곤
 했다”고 말한다. 김근태씨의 기
 록에 따르면 이 경감은 전기고
 문을 하는 도중에 부하직원을 크
 직제 라디오를 가져오게 하곤
 게 틀기도 했다고 한다.
 고문은 그것을 행하는 자와
 당하는 자 모두가 인간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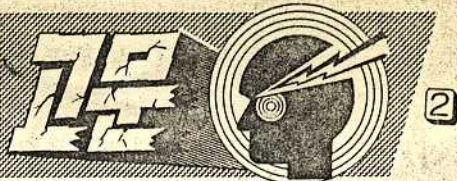
포기하게 하는 행위이다. 고문
 이 남기는 것은 '정신의 황폐화'
 뿐이다. 이 경감으로 대표되고
 있는 '고문 기술자'들은 '체제'의
 비호 속에 "우리는 너 하나쯤
 죽여도 문제되지 않는 신분"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인
 간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고문 기술자들이 가지는 공통
 점은 대부분의 경우 성명불상자
 라는 점이다. 치안본부 대공분
 실, 안기부, 보안사의 수사관들은

로 알리지 못해 은 점도 있었다.
 고문 기술자들은 또 고문 흔
 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며
 어쩔 수 없이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은폐하는 데
 신경을 집중한다. 구타에 의해
 시커멓게 멍이 들면 안티플라민
 등을 발라 멍이 없어질 때까지
 대기시키기도 하고 김근태씨가
 당한 것처럼 상처따위를 탈취해
 내기도 한다.
 고문 기술자들은 당연스럽게
 도 거짓말에 능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될
 것으로 보이는 윤재호 총경은
 김근태씨 발뒤꿈치 상처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오하러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고문 기술자들의 뒤에는 막강
 하지만 사악한 권력이 버티고
 있다. 이 권력은 고문이라는 극
 적한 범죄행위를 교사·방조·
 폐·조작해 왔다. 엄연히 있었
 범죄행위를 두고 "있을 수도
 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하는가 하면 범죄자들을 극진
 간싸고들었다. 이러한 권력
 에 있는 법원·검찰의 태도 역
 비슷해 마땅히 받아들여야
 고문 관련 고소·고발·제정산
 등이 기각된 예가 많다. 고문
 이렇게 조직적·제도적으로 보
 를 받으며 독버섯처럼 온존
 온 것이다.

지금껏 고문자들이 법의 심
 대에 세워져 벌을 받은 것은
 과 몇 차례에 지나지 않는데
 것도 법의 집행자가 팔을 걷
 불이고 나섰던 것이 아니라
 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울
 겨자먹기로 처리했던 것이
 또 그 몇차례 안 되는 '고문
 결'이 경찰에 한해서만 이루
 졌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안
 부와 보안사에서 침담한 고문
 당했다는 주장들이 솔하게 있
 고 법에 호소했던 적도 있는
 그 두 기관은 '눈 멀 수 없
 곳으로 버티고 있다. 이야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일파 고문·용공 조직의
 징적 인물 노덕술, 김창룡의
 승자들이 더이상 공권력을 농
 하게 놓아줄 수는 없다.
 <문학진 기자>

일상화된 반문명적 폭력



수법과 피해사례

한겨레신문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어디든 폭력이 존재한다. 이 폭력을 제도적으로 다스린다는 아름다운 기쁨 아래 은밀한 장소에서 고문이라는 또다른 폭력이 자행된다. 고문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갈수록 고문 방법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현대문명을 최대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네 죄는 네가 알렸다'라는 원님 재판에서 보듯 '자백을 증기의 왕'으로 삼던 봉건 왕조 시절부터 곤장으로 때리는 고문이 행해졌다. 그 뒤 일제에 들어서서 일본 경찰과 군부는 식민 통치에 방해가 되는 애국 독립지사들을 합법적으로 고문하고, 그 대가는 승진과 포상이었던 것이다.

그런 일제의 경찰 밑에서 보고 배운 한국인 경찰은 해방 뒤 이 땅에서 사라지기는커녕 반공의

그들로 숨어들어 고문 방법을 전수, 해방 뒤에 태어난 '후배 경찰'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 써먹던 방법을 '발전'시켜 전기고문, 성고문까지 개발, '고문기술자'라는 말까지 생겨난게 오늘의 현실이다.

물고문= 이 방법은 박종철씨가 숨진 뒤 고문의 대표적인 것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물고문이라고 해도 방법도 다양하고 실제로 고문을 당

굴에 덮고 큰 주전자로 물을 붓는 고문을 당한 것이다.

문씨뿐만 아니라 박문식(30)씨도 몸을 거꾸로 번쩍 들어 욕조 속에 처박는 '물고문' 3차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는 '물고문' 2차례 등 모두 5차례의 물고문을 당했다.

고문자들은 "몇 분만 지나면 폐에 기종이 생겨 죽게 된다"는 위협을 계속했는데 실제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고문은 보임·다산사건의 김상복(32)씨도 마찬가지로 86년 3월26일 남영동에서 20여일 동안 조사받으면서 몸을 거꾸로 번쩍

조사는 뒷전 무조건 몽둥이 세례부터 전기·성고문등 개발 일제때보다 악랄

한 사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울대 민주위사건으로 구속기 소된 문용식씨의 경우는 숨진 박씨와 다른 물고문을 모두 받았다. 즉 칠성판에 눕힌 채 수건을 일

들이 욕조 속에 처박는 '물고문' 3번,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샤워기로 물을 쏟아붓는 '물고문' 2차례 등 모두 5차례나 받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방파대 욕조가 마련돼 있고 새로 이전한 홍은동에도 진축 당시 욕조가 수십 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목욕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치고 목욕을 했다는 경우는 없어 결국 물고문을 위한 시설이 당초부터 마련돼 있다고 봐야 한다.

물고문은 여러가지로 '변형'됐다. 의자에 앉힌 채 머리를 뒤로 젖혀 코에 물을 붓거나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는 등 더 악랄한 방법으로 발전했다.

어떤 고문자들은 욕개장을 주문해 건더기는 먹고, 국물은 물고문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형된 물고문은 고문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일선 경찰서에서 형사범들을 상대로 자주 행해진다.

전기고문=이 고문은 사람이 전기에 감전됐을 때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근태씨는 전기고문은 물고문과 반대되는 불고문이라고 표현했다.

김씨는 "물고문이 밑바닥이 없는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질식해 가게 하는 것이라면 전기고문, 즉 불고문은 뜨겁게 달군 불인두로 지쳐서, 바싹 말려 바스라뜨리고 돌들 말아서 불에 튀기는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전기고문은 전기가 갖고 있는 위협 때문에 이근안 경감같은 '전기고문 기술자'가 '출장 고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기고문은 김근태씨의 폭로로 유명해졌지만 이근안 경감에 의해 앞서 말한 김상복씨, 전노련사건의 이태복(38)씨 등도 같은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성고문=인간의 부끄러움을 이용한 '인간 이하의 범죄'라고 규정해야 마땅하다.

부천시사건의 권인숙씨에 의해 유명해졌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수치심을 이용한 이 고문은 과거에도 많이 들려왔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발가벗기고 신체의 특정 부분을 조종하는 고문은 신체에 직접적인 위태만 없다뿐이지 고문인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청량리·서대문경찰서 등에서 여대생들의 옷을 벗기고 토끼털을 뒤통에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타=고문자들이 피의자를 연행했을 때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는 고문.

서노련사건의 김문수씨는 86년 5월6일 밤 서울 잠실에서 불법연행하면서 차안에서 보안사 요원들에게 구타당하고 깃발하기 시작해 송파 보안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온몸으로 끌려가서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난타당했다.

김씨는 보안사에서 1주일 있는 동안 엄지손가락에 전원을 연결한 전기고문 2번, 거꾸로 매달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고춧가루

물을 코와 입에 들어붓는 고문을 다섯번 당했으며 전기몽둥이로 몸을 지지고 구타하는 정도의 가혹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당했다고 폭로했다.

구타는 몸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초기에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고, 여기서 갖가지 고문으로 '발전'한다.

살인 누명을 쓰고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중 진범이 잡혀 풀려난 김시훈씨는 81년 7월12일 전주경찰서 요원들에게 불법 연행돼 20일까지 불합해 있으면서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 특히 김씨를 발가벗겨 철제 의자다리에 양팔을 묶고 양팔을 위 의자에 수갑으로 채운 뒤 끈봉으로 김씨의 생기를 내리치는 고문을 당했다.

유니버시티회 폭파음모사건의 황인오씨는 80년 6월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손·발목에 수갑을 채우고 코에 물붓기, 코와 입으로 고춧가루를 붓기, 비너꽃기, 통닭구이, 발가벗고 거꾸로 매달려서 소위 비행기타기, 손톱 밑에 바늘찌르기 등의 고문을 당한 외에 무릎에 몽둥이를 깨우고 3인이 교대로 뛰어내리기, 7~8명이 몽둥이와 고무호스로 무차별 타격하기 등 '변형된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고문자들은 구타로 통통 부은 부위를 바늘로 찌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구타고문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많이 행해졌다.

검찰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검찰수사과정에서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아직도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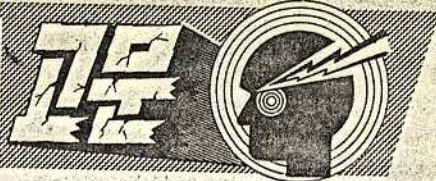
잠 인재우기=잠을 자야만 하는 인간의 생리를 이용한 고문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당한다는 것이다.

2~3일 동안 잠을 못 자면 만사가 귀찮아져서 결국 고문자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밖에 '온몸을 포승으로 묶고 양손을 머리 뒤에서 수갑을 채운 뒤 허벅지 부분과 양손을 다시 포승으로 죄어 놓고 목봉을 양팔과 머리 사이에 끼우는' 비너꽃기를 비롯, 통닭구이 등 고문자들이 발명해 낸 고문 방법은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유희락 기자>

일상화된 비문명적 폭력



③

한겨레 신문

대처방안

공권력에 의해 비밀스런 곳에서 자행되는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 전반에 걸쳐서 '고문 반대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반고문·반폭력 인간선언대회'를 주관한 김동완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는 "과거 부천서 성고문사건,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처럼 충격적인 고문사건에 국민들이 거센 저항을 했다"면서 "그에 따라 오늘날 가해자의 일부가 법정에서 서게 되어 고문근절에 한발짝 다가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이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인신매매가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유지외 가해자의 진급을 위해 자행되는 고문 또한 끊임없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사회적 풍토가 이루어져야만 고문기

술자는 고문을 할 수 없게 되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고문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려대 배중대 교수(형법)는 "고문, 특히 정치범에 대한 고문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수단일 뿐"이라면서 "정부당국이 고문 추방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80년대 들어서 시작된 고문 추방운동은 최근 김근태씨 고문담당자가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경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차원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문추방은 국제적으로 유엔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의 인권기구, 국내적으로 재야인권단체, 변협 등의 관심사항이었다. 이같은 국내외의 활동 배경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고문추방에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난해 발표된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문사태 조사대상국이 된 세계 34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됐다.

고문은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파괴로 까지 이어진다.

1975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고문행위를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규탄하고, '각국은 고문 혹은

정조사건 발동과 국회 인권특위 설치요구에 정부 차원의 특위 설치로 맞섰다.

고문추방에서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이다.

한일합성 김근조 이사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고문가해자에게 징역 1년 이상까지 처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후 발생한 박종철씨 사건에서 고문경관 축소·조작극은. 법률개정의 취의를 무색케 하였다.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도 고문추방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근안 경감의 수사에서 검찰은 처음에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여론에 밀려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수사의 범위도 우선 김근태씨 사건과 남북어부 김성학씨 사건으로 국한하고 있어 남민전, 진민학련, 반제동맹당 사건의 고문피해자 호소를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국제인권규약, 국제고문규

가해자 엄벌, 국제규약 가입 등 시급 뿌리뽑기 위한 국민 공동노력 있어야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법률로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 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 형사소송법 309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하여 고문에 의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문금지가 명문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5공화국 시절의 고문피해 호소는 계속 이어졌다. 김근태씨와 윤 노파 살인사건의 고수종씨가 겪은 고문사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다른 시국사건과 형사사건의 고문피해는 폭로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고문으로 인한 국민감정이 드높아지자 정부는 고문추방보다 정치적으로 희석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작년 박종철씨 사건으로 정국이 긴장되자 정부는 서둘러 작년 2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인권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섭)를 발족시켰다.

하지만 이 기구는 겨우 2번의 회합만 가졌을 뿐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최근 총무처의 건의에 따라 해산될 지경에 놓여 있다. 당시 민정당과 정부는 야당의 국

제규약과 같은 국제규약의 가입 여부도 정부의 고문추방의지를 측정할 시금석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들 규약은 인권침해 사항에 법적 구속력과 함께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고문금지위원회의 고문피해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6공화국은 지난 7월말 이들 규약에 가입할 방침을 세웠으나 국내법과 상충되는 점을 해결하지 못해 아직까지 국회 상정도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동완 목사는 "지난해의 6월항쟁 시발은 고문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으므로 6·29 선언에 고문철폐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재야와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고문사태가 하나씩 사실과 맞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흔히 6공화국을 5.5 공화국으로 이야기하듯이 5공화국에서 고문을 반복하던 기구와 인원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면서 "이들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추악한 고문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고문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

(끝)

과연 오키노는 어떤 인물이기에 일제의 혹독한 식민지배를 당한 아시아 각국의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런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가.

오키노는 한마디로 군국일본을 대변하는 마지막 세대의 선봉장이다. 올해 82살인 그는 도쿄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일제의 고등계 경찰로 출발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자치성(내무부에 해당)으로 자리를 옮겨 재정국장과 사무차관을 지냈으며 재정국장 시절에는 당시 대장상이던 사토 에이사쿠 전총리에게 지방재정 옹호론을 펴다가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

99

分類番號 : 7033호	日字 : 1988. 12. 30	所載 : 2	14
--------------	-------------------	--------	----

【龍仁〔任具彬기자〕 허위신공로 경찰차지사에 연행된 주민이 절도사실 자백을 강요하는 경찰관3명에게 고품을 달해 머리와 일흔등에 상처를 입고 입원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6일 오후 4시경 京畿道龍仁경찰서 內四지사에서 절도혐의자로 연행된 權○정

警察서 또拷問말쌍

龍仁內四지서 주민연행 窃盜자백강요 5시간

씨(24·龍仁 內四면陽洞)가 內四지서 捕房(刑務) 32) 과신(警) 28) 李기현(李) 27) 등 3명에게 5시간동안 어깨, 볼, 배, 위, 손가락을 리기 등의 고품을 당한 후 밤 9시경 풀려나 水原중앙병원 외과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李모씨(38·龍仁 內四면陽洞)로부터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 사회적 큰 호풍을 대변하고

1988/12/31 21:32:33 자료량 : 17줄

【상가포로-이식】 기행부로 일하다가 살인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필리핀인(42)이 필리핀 조야의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외교 고수형에 처해졌다.

이날 필리핀 경찰이 필리핀 언론들은 일제히 상가포로를 '강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필리핀 수지 상가포로 대사를 필리핀 2백여명

東亞日報社調查部

필리핀측은 이를 수십만명에 이르는 해외취업 필리핀 가정부들의 인권 문제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피델 라모스 대통령이 '엄정한 재심리'를 위해 형 집행을 보류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번호 : 48/168 입력일 : 95/03/17 21:32:33 자료량 : 26줄

제 목 : [아제르바이잔] 정부군-반군 무장대치, 교전으로 9명 사망

고문경찰관 구속

308. 용인경찰서 절도 피의자 자백 강요

【수원=배경록 기자】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31일 절도혐의로 지서에 연행돼온 용의자에게 고문을 가한 용인경찰서 내사지서 최정원(32) 경장을 독직 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야기학(26)·신종균(28) 순경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장 등 3명

은 지난 25일 오후 4시45분경 절도혐의로 지서에 붙잡혀온 권오정(23·용인군 내사면 양지리 679)씨에게 범행자백을 강요하며 양팔을 등뒤로 하고 들어올리는 속칭 '날개짜개'와 손가락사이에 불펜을 집어넣어 발로 밟는 '불펜끼우기' 등 가혹행위를 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했다. 최 경장 등은 권씨를 폭행하며 범행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하다 혐의가 없자 4시간 만에 "없던 일로 하자"며 설득한 뒤 풀어줬다.

지금의 법질서부터 정의롭게

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새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올해에야말로 인권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고한 많은 국민은 지난 시대에 독재권력 아래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 왔으며 독재권력은 바로 그 희생 위에 존재해 왔다.

5공화국의 인권유린을 청산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출발한 6공화국은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 겉으로 보기에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다. 또한 사법부가 젊은 법관들의 서명운동과 새 대법원장의 취임 이래 자율과 독립을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지남해] 말에 나온, 사회보호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제청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6공화국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 때문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인권유린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악법들을 개폐하기 위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정치권력 담당자들은 이런 악법의 '수호'를 주장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면 악법들에 기대야 한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그런데 개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법들은 5공화국의 최악의 지렛대였다. 모든 국민은 정치적 악법들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보편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나 민정당 의원들도 선거때에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악법의 개폐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가?

둘째로 정부·여당은 지난 시절에 인권침해에 앞장섰던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특히 고문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근안

경감의 경우 당국은 제도적·상습적 고문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극악한 고문기술자들을 엄중히 처단하는 일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감정적 보상의 차원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고문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째로 정부·여당은 인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한 기구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피의자 신문조항을 신설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정부·여당이 인권보장에 조급의 성의라고 보았다면 선뜻 따라야 할 일이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고문의 '은상'이 되어온 비정상적인 수사기구를 없애고 수사권을 적절히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자들은 '국법질서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수호'하겠다는 법질서는 아직도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승인하는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질서가 아니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면 먼저 스스로 악법을 개폐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을 응징하고 인권보장의 제도와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현재의 질서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강경대응'만을 능사로 삼는다면 5공화국 시대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고문당한 반제동맹사건 관련자등 11명 이근안씨등 경찰관 12명 고소

이른바 반제동맹당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21일자로 사면 복권된 박충철(28·서울대 법대졸)씨 등 이 사건 관련자 8명과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됐던 이승룡(26)씨 등 3명은 11일 이근안·한종철·이강원씨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등 86년 당시 경기도경 대공분실소속 경찰관 1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박씨 등은 수장에서 "지난 86년 10월30일 인천시 만수동 소재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된 뒤 11월 말까지 영장없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야만적인 고

문을 하루에도 여러차례 당해 하혈을 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6년 10월30일 오후 6시 인천 동부경찰서 대공과로 강제 연행됐다가 이튿날 낮 12시경 /도경 대공분실로 옮겨진 뒤 영장이 발부된 11월12일을 넘겨 11월30일까지 감금돼 있으면서 주심문관인 한종철·이근안씨 등 당시 그곳에 근무하던 10여명의 경찰관으로부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복사뼈가 바닥에 닿도록 다리를 벌리게 해 눈물을 짓밟는 날개쥐기와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그 사이에 무릎을 넣은 뒤 쇠파이프를 집어넣어 매달아

놓고 물이나 고춧가루물을 눈·코·입 등에 들이 붓는 통닭구이고문 등을 당해 여러차례 기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1989. 1. 12

89. 1. 12. 동아

拷問경찰관 12명 고소

신구면민회사법자 12명 반제동맹당사건에 시국사범 선배자 박충철(28·서울법대졸)씨 등 11명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추복안(26)씨 등 3명 (51·수원)씨 등 12명 서울지검 전담 10명 구속했다.

이들이 또 인천도 불의의 희생자의 유언고 관할인 신구면의 시립민회 장년회(이근안)야만적인 고문행위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위하여 편여 회합을 단행한다.

신구면민회사법자 12명 반제동맹당사건에 시국사범 선배자 박충철(28·서울법대졸)씨 등 11명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추복안(26)씨 등 3명 (51·수원)씨 등 12명 서울지검 전담 10명 구속했다.

이들이 또 인천도 불의의 희생자의 유언고 관할인 신구면의 시립민회 장년회(이근안)야만적인 고문행위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위하여 편여 회합을 단행한다.

89. 1. 12. 한국일보

反帝同盟黨은 고문통해 조작 對共경관 12명 告訴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구속된 박충철(28)씨 등 11명(이근안·한종철·이강원·추복안·이승룡·이근안·한종철·이강원·추복안·이승룡·이근안)을 고소했다.

이들은 또 인천도 불의의 희생자의 유언고 관할인 신구면의 시립민회 장년회(이근안)야만적인 고문행위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단죄를 위하여 편여 회합을 단행한다.

100

다방 여종업원 경찰 집단추행 주장

고소·사실무근 팽팽

다방종업원이 두 경찰관에게 윤간당했다고 주장(《한겨레신문》 12월29일자)하여 대구여성계가 들고 일어났던 사건의 주인공이 16일 상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에 호소하자 이 단체

가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인 경찰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2-3B

성간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면서 몇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78년 7월17일 부산시 서부경찰서 이미파출소에서 리아무개 순경과 오아무개 방범대원이 공장내 도난사건의 용의자로 연행된 박아무개(17)양을 몸수색이라는 명목으로 목욕탕으로 끌고가 윤간했다고(《조선》 78.7.24) △84년 2월24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시비 끝에 숙직실에 보호되어 있던 김아무개(24)씨를 오아무개(27)순경이 새벽 3시50분경 강제추행하였으며(《동아》 84.2.28) △86년 4월7일 서울 태봉경찰서 형사계속 신동영(40)씨는 식품을 훔치다 연행되었던 상양을 "내 팔을 잘들으면 불구속처리해 주겠다"며 강제추행했으며(《동아》 86.12.15) △87년 8월1일 전남 고흥군 고흥경찰서 풍양지서 김아무개(27) 순경은 같은 마을의 임신(6)세의 신아무개(26)씨를 강간. 신씨는 이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으나 88년 5월 음독자살했다고 한다.(《한겨레》 88.12.14)

대부분 여성피고자의 의견을 이용, 추행해온 경찰관에 의한 일련의 강간 사건은 그 강간자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덮여오기가 일쑤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우정 회장은 "다방종업원이나 재춘여성은 강간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곤란하다"면서 "용감하게 문제제기한 강씨를 여성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끝까지 후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북구 대현동 파출소 이명호 소장은 "술에 취한 여자를 보호해 주었을 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두 경찰관은 정상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심장수 검사는 "현장검증도 했는데 서로 이야기 너무 달라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만 말했다.

강정순씨는 "우리사회에서 어느 여자가 강간당하지도 않았으면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강간당했다고 말하겠느냐"면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지만 몸을 팔지는 않았다"고 울면서 호소했다.

(김미경 기자)

여성회 "인권차원 강력 대처할터" 경찰 "술취한 여자 보호했음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간피해자 강정순(29·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간범 잡는 경찰이 파출소에서 윤간이 뉘얼어나는 성명서를 발표, △강간경찰 백승근, 김정부를 즉각 구속처벌할 것 △대구 북부경찰서장과 시경국장은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정부는 성폭력을 근절시켜 여성인권을 보호할것등을 주장했다. 성명서발표에 이어 강정순씨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 10명은 기독교회관 3층 한국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5일 대구의 다방종업원 강씨가 근무를 마치고 밤 11시경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대현동 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정부(49)차석과 백승근(29) 순경이 강제로 파출소 내로 끌고 들어가 윤간했다고 밝힌데서 시작됐다. 강씨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 그대로 덮어두려고 했다. 그러나 성병까지 걸리게 돼 용기를 내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강씨와 사건관련 경찰관 2명의 성병유무를 검사되던 현대기독병원은 "세 사람 모두 똑같이 성병균의 일종인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경찰측은 "포도상구균은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집균"이라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달 27일 대구여성회·대구노동자협의회·경북대 총여학생회 등 18개 단체가 연합,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규탄대회를 열었고 30일에는 '대현동 파출소내 경찰관에 의한 여성윤간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 해당 경찰관과 소장을 면담하고 강정순씨의 자필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펴 왔었다. 대구여성회는 "경찰에 의한 여

문명 | 한겨레신문 | 년월일 | 1989. 1. 25 | 분류 | > 3 B | 비고

수배해제 대학생 연행

집시법 위반 경합된 폭행혐의 안풀어

지난 12월 21일의 사면 복권조치로 수배 해제된 대학생이 경합된 폭력행위 부문에 대한 수배가 해제되지 않아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중이던 오봉욱(25·시인·전주대 국문4·광주시 북구 풍향동 494-15)씨를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심검문으로 연행, 이날 오후 전주서에 넘겼다. 오씨는 전주대 학원민주화추진특위 위원장이던 지난 87년 10월 동료학생 1백여명과 함께 학원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도서관을 점거, 기물을 파괴·방화하고 학생과강 등 직원 6명을 구타한 혐의로 동료학생 37명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88년 5월 12일부터 수배중이었으나 정부의 사면조치로 지

난 12월 23일 수배가 해제된 상태이다. 오씨는 24일 '87년 사건 이후 지금까지 광주 집에서 생활해 왔으나 경찰이 체포하러 오지도 않았으며 87년 이후 어떤 폭력사건에도 개입되지 않았다'면서 '12·21 사면 복권조치로 집시법 위반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부문에 대해서도 수배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학까지 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창작과 비평'사에서 <지리산 갈대밭>이라는 시집을 발간하는 등 시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런데 오씨는 수배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학까지 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창작과 비평'사에서 <지리산 갈대밭>이라는 시집을 발간하는 등 시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런데 오씨는 수배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학까지 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창작과 비평'사에서 <지리산 갈대밭>이라는 시집을 발간하는 등 시인으로 활동해 왔다.

이집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이집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이집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이집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전화) 172-3122 (팩스) 172-3189
17-13 조양동 3층
(140-720) 서울기 동구로 466호
대표자: 김도원 | 발행인: 최영준
등록번호: 이집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102
102

80년 계엄법정서 10년~무기형 마구잡이 선고

형사범 33명 석방 여론

감형 혜택도 못받아...법 형평 어긋나

지난 80년초 계엄기간중 군사법정에서 일반법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일반형사범 30여명이 아무런 감형 석방조치도 받지 못한 채 현재도 복역중임이 알려져 법의 공평한 적용과 형평을 위해 이들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삼청교육대상자 집중단속기간에 불참하거나 기소중이었던 사람들로 심한 고문으로 혐의사실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구속될 당시 국보위 사회정화위원회가 군 검찰에 시달한 '삼청계획'에 따른 군법회의 압무지침에 따르면 △단체조직 폭력배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간부는 무기징역, 가입자는 징역 15년 △단체조직 치기배 수괴 및 간부는 15년, 행동대원은 법정최고형 △상습폭력(전과2범 및 벌금전과 3범 이상)은 15년형 △공약범 및 현행범 역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돼있다. 군 검찰이 이 지침에 따라 내린 구형량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판결돼 평상시라면 2~3년형에 불과할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징역 10년~20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계엄기간중 5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민간인 현황'에 나타나 있는 장기수 명단 가운데 아직 출감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33명으로 신대근(폭력행위)씨 등 11명은 징역 10년, 구만희(특수 절도 등)씨 등 10명은 징역 12~15년, 김용운(상습특수절도 등)씨 등 5명은 징역 20년, 이상학(범죄단체 조직 등)씨 등 7명은 무기형 등 대부분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동하(44)씨는 가족을 통해 "수사당국이 단순 간통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시인하게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재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박무남(38)씨는 경기도 가평 북한강유원지에서 장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몇차례 싸우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돼 과출소에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다고 주장, 자신에 대한 지나친 형벌을 시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공주교도소에서 이들 장기수 가운데 8명과 함께 있다 출감한 장기표(천민련 사무처장)씨에 따르면 시국사건으로 인한 양심수들과는 달리 수차례 행한 사면조치에도 계속 제외돼온 이들도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시작, 지난해 11월에는 석방을 요구하며 5일간 옥중단식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5공비리 특위에서 지난해 이들의 석방문제를 법무부에 정식 제기한 데 이어 민가협 등 재야단체에서도 석방운동을 전개할

운동을 보이고 있다. 5공비리 특위의 강신욱 의원(민주)은 "연말 사면 때 이들이 모두 풀려날 줄 알았는데 아직 30여명이 남은 것은 뜻밖"이라면서 "법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가협의 조무하 총무는 "이들 본인 및 가족의 진술로 볼 때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많은 부분이 당시 공포책 분위기 속에서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5공 출범의 속죄양심이 분명한 이들을 마지막까지 절망시키는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닌 이상 마땅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용국 법무부 검찰3과장은 "그들은 강도·강간·살인 등 상습 흉악범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량을 받고 복역중"이라며 "그런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것은 양심이 의심스러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동하(44)씨는 가족을 통해 "수사당국이 단순 간통사건에 살인미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시인하게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재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1882년 3월 31일
[도로 차나-로도 로이티 연합]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 제국군 관리들은 방위장인 예시
일본 관리와 고노 외무장관을 폭격
다고 전하고, 그가 일본 제국군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 제국군(825)로 장관인 관리들은
국 전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엔의 최대
지역 나라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리들은 특히 고노 외무장관과 예시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 안대희
검사는 3일 이 사건의 본격수사
에 착수, 박충렬(29·서울대 법대
졸)씨와 이민영(28·서울대 자연
대 3년제적)씨 등 고소인 2명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박씨와 이씨는 검찰에서 "지난
86년 10월30일 인천시 만수동 소
재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강제연
행된 뒤 11월말까지 영장 없이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날개깎기·
관절뼈기·통닭구이 고문을 비롯,
고춧가루고문·물고문 등 야만적
인 고문을 하루에도 여러차례 당
해, 하혈을 하는 등 심한 후유증
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반계동맹당사건은
이근안 경감 등 대공경찰관 12명
이 고문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
라고 진술했다.

**이근안씨 등 경찰관 12명
고문폭행 고소 수사착수**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
안(51)씨 등 경찰관 12명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고소사건을 수사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5일 제출한 예산결산제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5일 제출한 예산결산제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5일 제출한 예산결산제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5일 제출한 예산결산제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5일 제출한 예산결산제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투카리 들

보고서는 "35년중 원화로 지급되는 현지 인건비가 추한미군 운영유지
비용의 40%에 이르는 약 3억7천만달러 상당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최
소 10%의 비용유지나 운영유지비로 30% 정도는 운영유지비로 10% 정도는
운영유지비로 10% 정도는 운영유지비로 10% 정도는 운영유지비로 10% 정도는

이 되 동 을 가 육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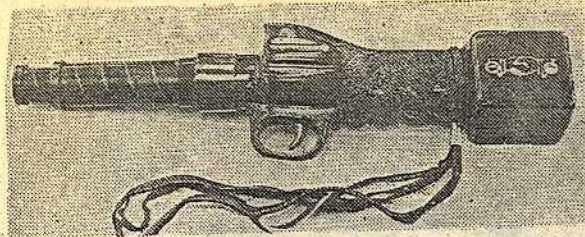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5일 제출한 예산결산제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1987년 10월 15일 제출한 예산결산제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104

東亞日報社調查部

電子棒으로 손과 등에拷問

連行근로자 주장 病院서皮下出血2週진단



〔昌原〕朴成東 朴鶴錫 崔永 태를 몰고온 민주당 馬昌 의원의 경찰장부 폭행사건인 默기자 경찰의 집단사표 사 노사분규 심해조사단 沈完求 경찰의 亞細亞 21일차들의

맨살닿으면 순간적인 충격을 받아 흥기든犯人 검거용 臺灣서輸入

電子棒은 지난 70년 臺灣에서 개발된 대만경찰의 요 설치위자 진압을 위한 특수용 도에 사용하던 것으로 무 리나란조선기 범인이 흥기 100볼트 피피코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사제가 빈발하자

3단들의 튀어나오고 다시 방아쇠를 당기면 3단들의 감겨있는 가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되었다. 1.5V 전지 4개를 사용하며 10~15 개씩 지닐 수 있다. 플라스티크 등 모양인 전자棒的이 휴대시 30cm 가량의 로직은 우산만한 크기의 나방아쇠를 당기면 양부 분에서 압테나선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되어 있다. 30cm 가량의 로제오를 수 있는 것이나

전자봉은 고압을 담았다 고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 러 昌原경찰서를 방문한데서 비롯돼 「전자봉」은 새로 운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경찰의 전자 봉근로자 시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이 집단사표를 과잉민중 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馬昌시외시우외 관원 경찰에 亞細亞 21일차들의 昌原1공창근로자 黃宗수 씨(23)는 24일오후 2시부터 9시 사이에 昌原경찰서 형사 계사부실에서 전자봉의 손을 잡게하고 등에 전자봉을 문 지르는데 전자봉근로자를 담았 다고 주장했다. 黃씨는 지난 26일 昌原시내 한의원에서 피하출혈 100이

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또 黃씨의 함께 경찰에 연 행했던 같은 급원사 1공창근로자 金진하씨(25)도 경찰의 3단 전자봉을 40~50cm 길이로 붙인뒤 전신에 문질러 전 기충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근로자들은 전자봉근로자를 당한 근로자들은 자신 들을 포함 급원근로자 11명 과 (주) 동원근로자 4명 모두 1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昌原경찰서에는 6개 의 전자봉이 있는 것으로 확 인했다. 한편 慶南도경찰계자는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를 거 부하고 다만 경찰관 진압을 위해 오래전에 전자봉의 지 급됐으나 현재는 고압전류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사실 심증 굳혀

마산지검 '전자봉고문' 피해자 6명 조사

1989. 5. 23

[마산=김현태 기자] 23일 오후 3시의 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동자 전자봉 고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마산지검 김용진 검사는 2일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노동자 6명에 대해 조사했으나 서로의 진술내용이 엇갈려 고문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3차례에 걸쳐 노동자들을 신문한 결과 고문 주장 노동자들이 △등·가슴에 전자봉을 문지르며 손으로 잡게 하는 등 전자봉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고문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일치하고 있어 최소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됐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증을 굳히고 있으나 △옆 동료의 비명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창원경찰서장 고발

전자봉고문 사건 관련

1989. 5. 21

[마산=김현태 기자] 마산·창원 임금인상투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진영규·<주>통일 노조위원장)는 20일 오전 11시 지난달 24일 창원경찰서에서 발생했던 전자봉 고문사건과 관련, 김말태 창원서장과 고문가담 경찰관 3명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투본 산하 노조원 9천8백63명이 연대서명한 고발장을 마산지검에 제출했다.

전자봉고문 관련 창원서장 고발

1989. 5. 21 임투본부 이름 안밝혀진 가담경관 3명도

1989. 5. 21

[마산=김현태 기자] 마산·창원 임금인상투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진영규·<주>통일 노조위원장)는 20일 오전 11시 지난달 24일 창원경찰서에서 발생했던 경찰관 전자봉고문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과 김말태 창원서장을 비롯, 고문가담 경찰관 3명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 투본 산하 노조원 가운데 9천8백63명이 연대서명한 고발장을 마산지검에 제출했다. 마창투본은 고발장에서 연행노동자 정태구(23·<주>통일), 김진환(24·금성사)씨 등 15명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창원경찰서 형사계 경찰관 3명으로부터 전자봉에 의한 전기고문을 당했

는데도 관계당국은 조사조차 않고 있다며 책임자와 관련경찰관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자봉 고문' 경찰 처벌 요구

경남 노동자가족 의원사무실서 밤샘농성

1989. 5. 24

[마산=김현태 기자] 경남 노동자가족협의회(회장 이기숙) 회원 50여명은 23일 오후 3시 마산시 합성동 강삼재 의원(민주) 사무실에 들어가 △구속자 석방 △수배조치 해제 △합수부해체 △전자봉고문 경찰관 처벌 등 4개 항을 주장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부산동의대 경찰참사가 있는 지 며칠이 못 되어 5월은 또하나의 참혹한 죽음을 우리 앞에 던져주었다. 불에 탄 듯 검은 얼굴에 하늘을 향해 부릅뜬 눈, 차가운 시신으로 조선대생 이철규씨는 물위에 떠올랐다.

아직 진실을 잘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저 애석한 의문의 죽음을 당국은 의사사고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만에 하나라도 이 죽음이 박종철씨의 고문치사 사건이나 부천서 성고문사건이나 김근태씨 고문사건 때처럼 공권력의 범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향간의 의혹이 벗겨지도록 신속하고도 성의있는 당국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솔직한 대국민적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당국의 성의있는 해명이 있다고 해서 의혹이 쉽게 불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정황이다. 그 부담은 공권력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다. 공권력의

대국민공신력과 설득력은 아직 저급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5공청산과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등 역사적 과제들을 성의있게 풀려고 하지 않았다. 기회만 있으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구실을 찾아 검거선봉을 불러일으



의문사에 대한 몇 가지 의문

김 일 수

키며 편한 방법으로 정권의 안정을 다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을 동원하여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힘으로 지키려던 5공식 힘의 논리가 부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아래서 공권력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믿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진실성 위에 힘의 자제와 겸손성을 더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한다. 이씨의 죽음은 사실 실족의사나 고문살인이나의 원인규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젊은이의 차가운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

했다는 사실과 그 죽음이 징표하는 우리시대의 병리현상에 대한 솔직한 고발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의 문제 이전에 우리는 그가 왜 죽었는가를 물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기 전에는 이 시대에 또다른 한심한 죽음이 발생할 것 같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로 하여금 대로를 버리고 어둔 밤길을 피해 다니게 하고 가파른 석축을 끼고 죽음의 벼랑을 지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분단상황이, 이 시대의 불만족스러운 민주화가 급기야는 그를 용공좌경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사회에 발붙일 곳 없는 이단자로 낙인찍어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한때의 정신적 질풍노도를 지나고 나면 저들도 성숙한 자유사회의 시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면만 우리의 법과 정치는 이를 포용할 사랑과 인내가 부족하다. 누가 체제내에서 지니고 있는 부당한 몫을 내놓지 않으려고, 자기가 포기해야 할 희생의 부분을 남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좌·우익논리를 퍼며 속죄양을 찾아 쓰다니는가? 이 시대적 갈등 속에서 생겨나

는 저 슬한 죽 결혀하고 낮은 야야 한다. 에 이 시대 이 서나 자신도 악성을 고백하 과 체제보다 우리는 얼마나 적 목적을 위한 컸던가? 우리 저 민망스러운 음과 죄스러운 보다 당장의 정 의 회복을 위해 들을 얼마나 컸던가? 법을 다스리는 검으로 또다른 땅위에 불려오 이제 저 영혼은 히 잠들도록 하고 의 현장이 눈에 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더 이상 바라다. 죽음을 죽음을 이용하는 은 악이다. <고려

901

901

“권력의 과학성 악용에 수난”

‘법의학의 사회적 의무’ 학술강좌 이정빈 교수 주제발표

이철규씨의 죽음을 계기로 법의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법의학자라 하더라도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검을 감청해 내 그가 말 못하는 진실을 읽어낼 수는 있다.

이러한 '법의학이 우리나라에선 시국사건 사망 원인규명에 매우 무기력했을 뿐더러 법의학이 가진 '과학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권력이 자살 또는 사고사로 단정 짓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이철규씨 사건 위 경우 발생 초기에는 사체의 상태와 수원지 주변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타살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플라스크와 혈중알콜 검출사실 보고를 토대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씨의 죽음을 사체 발견 일주일만에 '음주후 실족에 의한 익사로 단정 지음으로써 법의학의 판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주최한 '법의학의 사회적 의무'를 주제로 한 학술강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법의학이 어떻게 권력에 의해 굴러왔는가' 소상히 밝혀짐으로 법의학이 권력 앞에 얼마나 무기력했던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소신 밝히다 월북·망명도

특히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의대 이정빈 교수(법의학)의 연은 이한열씨, 이경현씨, 광주콜 등의 사망과 부상원인 감정 참여했고 검찰의 이철규씨 사 감청에도 자문을 한 국내 법의학의 권위자라는 점에서 시사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해방 우리나라 법의학은 권력에 의 그 모양이 매마르게 됐다"며 직한 사건을 열거했다. 해방 직후인 46년 11월 25일 한 충성을 둘러싸고 경찰과 군 무대간에 싸움이 벌어져 특무 요원이 경찰에 맞아 죽는 사 이 발생했다. 당시 경성제대 병리학 교실의 일한 한국인 조교였던 관계로 체부검을 맡았던 남이무개 교 는 부검장 밖을 양파껍질처럼 겹으로 둘러싼 경찰과 특무대 의 위협 때문에 부검결과서를 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경찰이 러 죽었다'는 보고서를 소신껏 성했다. 남 교수는 그 뒤 경찰 의해 테러를 당하는 등 수난 겪던 끝에 6.25가 일어나기 틀전 월북, 김일성대학 교수직 받기도 했다.

68년 3.15부정선거 후 마산 앞 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4.19의 기폭제가 되었던 주철씨에 대한 부검도 똑같은

사태이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에서 일하던 유 아무개씨가 부검을 실시, 타살이라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씨의 압력에 굴복해 '익사'라고 판정을 반복했다. 4.19 이후 그는 반역자로 몰려 법의학 학을 포기, 미국망명길에 올랐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뒤 국내에서는 법 의학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서로 "말지 않겠다"고 미루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 부검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 소견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씨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황적준 박사는 부

소장은 이번 이철규씨 사건의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장직을 그대로 맡고 있다.

지난 1월 광주 청문회가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을 때 광주 부영산 기슭에서 발굴된 유골을 현지에 내려가 감청한 이정빈 교수는 이날 인의협 소속 의사들의 질문에 대해 해명과 함께 "감청 결과를 반복하겠다"고 밝혀 주목

박종철 사건 등 막을 '중립 기구의 부검'을 사체앞 외로운 의사...압력 이길 용기 필요

의사가 거의 전무하게 돼 현재 국내에서 법의학은 서울대·고려대·경북대 의대에서 겨우 5명의 교수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또 내무부 산하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도 5명의 전임의사와 3~4명의 촉탁 개업의사가 있을 뿐이며 전임의사들도 대부분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통해 법 의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졸업 뒤 연구소에 들어와서야 법 의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원 부족 때문에 하루 10구 이상을 부검하는 일도 흔히 일어나며 특히 시국관련 사건인 경우 법의학

검 직후 치안본부장실에 불려가 강민창 본부장과 5명의 차장에 둘러싸여 물고문을 은폐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는 며칠간 잠 못이루고 고민하다가 가족과 친구의 격려로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 부패한 5공화국이 무너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지만 6공화국이 들어선 지금 그는 미국에서 망명 아닌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시국사건 서로 안 말으려

당시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황 박사를 보호해주지 못한 윤중진

을 끝냈다. 당시 이 교수는 광주 유골 발굴 현지에 내려가 유골을 본 직후 "광주항쟁 및 총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80년대 들어 발생한 술 한 노동자와 학생의 의문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법의학은 권력에 의해 박제화된 모습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영진(인의협 출판부장·국립의료원) 씨는 법의학이 가진 과학성은 자칫 '법의학 맹신주의'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권력의 속성을 법의학자

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의학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의 총체적 정황을 집어두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부검과 감청을 국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만 소견서를 쓰는 것이 강조돼야 함은 물론 부검결과를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국민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 또한 부검의사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국사건의 경우 본래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의해서 부검과 감청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중립적 위치에 있는 기관에 의해 부검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의사 양심 따른 소견' 절실

이런 전문직업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요즘처럼 권력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 아래 외로이 사체부검과 감청을 맡는 법의학자는 '이따한 곤경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정빈 교수는

법의학자로서의 자세를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강좌후의 간담회에서 이철규씨의 사체가 부패 상태나 허파파리의 파열 등 의사라고 볼 만한 특징을 보이기는 했으나 부검의가 집도 때 메스와 장갑교환 수칙을 어겼고 부패과정에서도 만들어지는 알콜 검출을 음주로 단정할 점, 그리고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뒤 지난해 6월부턴 두달간 이 연구소에서 일 해 온 이원태 박사를 부검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신동호 기자)

'고문' 피소 경찰관 72명

1989. 6. 02
치안본부 3년간 집계 5명 구속·21명 무혐의 처리

지난 8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문수사 시비와 관련해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전·현직 경찰관은 모두 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각종 시국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이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사건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경찰관을 고소·고발한 사례는 8건 72명에 이른다.

치안본부는 이들 고소·고발된 경찰관은 구속 5명, 무혐의 21명 등 지금까지 34명이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38명은 검찰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된 경찰관을 사건별로 보면 △김성학씨 관련 16명 △반계동맹당사건 13명 △부산사상공단 노동자 의식화학습 관련 12명 △김근태씨 관련 11명

△박종철씨 관련 9명 △햇볕희사건 8명 △성남 노동자해방동맹 사건 2명 △대림통상 구사대 관련 1명 등이다.

고소 72명 1989. 6. 2

치안본부 3년간 집계 5명 구속·21명 무혐의 처리

분단에 쪼갠 비극적 인간집단

사회안전법 폐지 계기로 본 수형자들의 삶

23B

그동안 대표적인 악법의 하나로 논란을 빚어온 사회안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되고 대체법안으로 보안관찰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통과에 이어 6월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공포령에 따라 지난 75년 시행 이후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법률로 계기돼 온 사회안전법은 사실상 폐지되고 수감중인 보안감호대상자 35명은 오는 10월 중순께 풀려나게 된다.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 속에서 생겨난 이 비극적인 인간집단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풀려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안감호소에 수용돼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과 관계자들을 통해 그 실상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제주보안감호소에서 지난해 석방된 강종건(왼쪽)씨와 수감중인 한백렬씨의 아들 한선화씨가 2월22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사회안전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김선규 기자>

그동안 역대 정권은 사회안전법으로 수용된 사람들을 '결수 죄의사상범'으로 간주해 왔다. 78년 11월 청주보안감호소가 생기면서 이들과 함께 보안감호처분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서준식(41)씨는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서씨는 "지난해말 감호소 쪽이 남아 있는 35명 가운데 간첩 죄목에 걸린 사람은 13명이라고 밝혔다"면서 "그중 6·25전쟁중 사법절차가 엉망일 때 그런 죄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로 이들중 대부분이 남한에 가족과 친척 친지 등 확실한 연고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남규씨를 포함하여 70대 4명, 60대 25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국제적 인권탄압 비난 의견 이들은 대부분 국방경비대법, 구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5~20

18~36년 옥살이...정상생활 복귀 어려워 '죄의사상범' 딱지로 폐인...가시밭길 다시 없기를

오는 10월쯤 35명 풀려나 지난해 10월 제주보안감호소의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조찬형 의원(평민)은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거의 모두가 60을 넘어선 인연에서 제법의 우려를 들어 보안감호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라며 "30여명을 가둬놓기 위해 인권탄압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시설과 인원을 낭비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보안감호소에 수용중인 보안감호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64살. 최고령자인 77살의 최

년의 형기를 마친 뒤 다시 보안감호 10~14년을 계속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짧게는 18년부터 길게는 36년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청춘의 대부분을 감옥, 그리고 감옥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감호소에서 보내고 인생의 황혼을 맞고 있다.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고령으로 이들의 건강은 매우 나쁘다. 피감호자의 절반 가량은 위장병과 소화장애로 고도소 음식과 똑같은 감호소 음식소 소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양말을 깨끗하게 빨아 그 속에 음식물을 집어넣고서 플라스틱 절구에 썰어 죽을 만들어 먹는다. 윤희보(72)씨의 경우는 고혈압 심장병 등 합병증을 앓아 여름에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지낸다고 한다. 김권식(68)씨는 오랜 수형

생활로 정신질환에 걸려 헛소리를 중얼거리거나 몇 달 동안 운동시간에 나가지 않고 1명 남짓의 방안에 틀어박혀 있기도 한다. 김해섭(65)씨와 안희수(61)씨는 결핵에 걸려 있지만 감호소 당국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사탕의 맨 끝방들을 결핵환자 방으로 지정하여 이곳에 수용하고 있다. 배식 과정에서 결핵균이 다른 수감자에게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부인 이혼 요구에 도장찍어 신체장애자들도 있다. 권낙기(42)·한백렬(70)씨는 한쪽 다리가 없어 의족과 목발에 의지하고 있고, 금재성(63)씨는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석방되어도 목숨을 오래 부지하지 못한다. 지난해 9월말 석

방된 김병인(74)씨가 위장병과 전립선암으로 지난 2월 사망한 예에서 보듯이 이들은 '서서히 스러져 가는 인생들'인 것이다. 당국이 뒤늦게나마 종전의 입장에서 전환, 이들의 석방으로 돌아선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고 분석된다.

이들 가운데 임방규(57)씨 등 7명은 원형기를 마치고 75년 사회안전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했었다. 그러나 보안감호처분으로 다시 기약없는 수형생활로 들어가자 이들 7명의 가정은 파탄을 맞이했다. 한춘외(69)씨는 부인의 이혼요구에 어쩔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

었다. 이후 한씨는 이에 충격을 받아 정신병 환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가거나 본인이 '죄의사상범'이라는 딱지 때문에 부인과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하여 자칭하여 이혼한 경우도 있다. 또 유운형(65)씨 경우는 20년간 원형기를 마친 다음 결혼을 하였으나 다시 1년 뒤 신혼의 단꿈을 깨기도 전에 보안감호소에 수용되어 이후 부인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16살에 지리산 탈치산이 된 김영송씨는 이성교제 한번 못한 '할아버지 노총각'이다. 김씨처럼 총각신세로 늙어가는 보안감호 대상자는 10명이다.

연고지없는 9명 양로원행

이들 가운데에는 가족이나 마땅한 친척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한복 청진출신 8명과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김권식(68)씨 등 9명은 석방되어도 막상 갈 곳이 없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그동안 석방된 17명 가운데 4명의 전철을 밟아 양로원에 수용될 운명이다.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리는 가족과 친척들이 있다. 쪼긴 가정, 상처 받은 친척들이지만 마음 깊이 묻

혀있는 혈육의 정을 느끼면서 청주 보안감호소의 문이 활짝 열릴 날만을 기대하고 있다. 32년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감호대상자의 한 동생은

"원형기를 마치고 감호소로 들어가기 전인 5년동안 형님에게 느낀 따뜻하고 인자한 성품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비록 내가 전세 5백만원의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 개미공장을 축소해서라도 형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이와 함께 보안감호 대상자들이 돌아온 뒤의 생활에 다시금 가시밭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가족은 "지난 30여년간의 세월을 알아서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주위의 눈치와 두려움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었다"면서 "대체 입법으로 시행되는 보안관찰법 때문에 주위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 이웃사람과 금이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김성걸 기자>